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국내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1998-2009년)

- 석사논문분석연구 -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권 정 인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국내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1998-2009년)

- 석사논문분석연구 -

강 경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권 정 인

# 인 준 서

권정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고 은 미 인

심사위원 박 은 현 인

심사위원 강 경 선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 대상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국내 노인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분석 대상 논문들을 연도별로 연구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전공 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국내 노인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의 빈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 2008년에 연구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의 유형에 있어서는 실험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질적인 연구도 꾸준히 시도되었다. 양적·질적인 두 가지 연구법을 병행하는 연구의 증가는 음악치료 접근의 특수성에 의한 다양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는 신경질환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노인에 대한 연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경질환 대상자 중 특히 치매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넷째, 연구의 목적영역에 있어서는 6가지 분류 항목 중 정서영역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지영역의 연구가 높았다. 목적 영역에 따른 측정도구 또한 정서 측정 심리적 도구들의 사용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연구의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음악치료 전공이 관련분야 보다 약 2배의 연구 성과를 나타내었다. 측정 도구에 있어서 음악치료 전공분야는 다양하였으나 관련분야에서는 심리적 도구에만 편중되어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대상 음악치료 연구 동향은 획일적이고 편중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음악치료 전반 및 국외 노인 음악치료 선행 논문 분석 연구들의 동향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노인 대상의 국내 석사학위 논문 분석 결과를 통하여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연구 방법과 연구대상, 연구목적, 측정 도구 사용의 방향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II. 이론적 배경 .....	4
1. 노년기 질환 .....	4
2. 국내 노인 연구 동향 .....	10
1) 간호학 .....	11
2) 심리학 .....	12
3) 미술치료학 .....	14
4) 원예치료학 .....	15
3. 국내 노인 음악치료 .....	18
1) 노인 음악치료 연구 현황 .....	18
2) 노인 음악치료 관련 내용 분석 선행 연구 .....	2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23
1. 분석대상 .....	23
2. 연구절차 .....	23
3. 분류기준 .....	24
4. 자료처리 .....	25

IV. 연구결과 .....	26
1. 연도별 연구 개관 .....	26
1) 연도별 연구 동향 .....	26
2) 측정도구 분류 .....	28
2. 연도 유형별 연구 동향 .....	35
1)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 .....	35
2) 연구 유형에 따른 측정도구 .....	36
3. 대상자별 연구 동향 .....	38
1)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	38
2) 연구 대상에 따른 측정도구 .....	40
4. 목적 영역별 연구 동향 .....	42
1)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목적 영역 .....	42
2) 목적 영역에 따른 측정도구 .....	44
5. 전공 및 관련 분야별 연구 동향 .....	45
1)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전공 분류 .....	45
2) 전공분류에 따른 측정도구 .....	47
V. 결론 및 제언 .....	48
1. 결론 .....	48
2. 제언 .....	51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차

<표 1> 노인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분포 .....	27
<표 2> 심리적 기능 측정도구 .....	30
<표 3> 생리적 기능 측정도구 .....	33
<표 4> 음악적 기능 측정도구 .....	34
<표 5>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 분포 .....	35
<표 6> 연구 유형과 측정도구 .....	37
<표 7>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	39
<표 8> 연구 대상과 측정도구 .....	41
<표 9>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목적 영역 .....	43
<표 10> 음악치료 목적 영역별 측정도구 사용 빈도 .....	44
<표 11>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전공분류 .....	45
<표 12> 전공분류와 측정도구 .....	47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연도별 분포 .....	27
<그림 2>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 분포 .....	36
<그림 3>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분포 .....	39
<그림 4>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목적 영역 분포 .....	43
<그림 5>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전공분류 분포 .....	4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10.3%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결과이다(통계청, 2008). UN 고령화 사회의 분류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15.1%로 고령 사회, 202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를 불과 10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노인 대상 음악치료는 과연 얼마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보다 앞선 미국은 1944년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최초의 음악치료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46년 캔사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음악치료 학위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그 역사가 70년을 바라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음악치료는 1997년 대학원 석사과정의 음악치료 학과 개설을 시작으로 약 13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길지는 않지만 10년이 넘는 현재, 그 동안의 음악치료 발전 안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의 연구 동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노인 대상 음악치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

신우영(2005)의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대상별 분포가 장애아동, 일반대상, 정신과, 노인, 일반 의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장애아동과 일반대상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1년 이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인과 일반의료 분야에 관한 연구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의 분석이 2004년까지의 연구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현재연(2005)은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표 및 음악치료활동 형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이 국외 연구 논문 이었다.

이처럼 노인 대상의 음악치료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기간에 있어 그 이후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국내의 짧은 역사 때문에 국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국내 노인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들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논문들을 연도별로 연구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정리하며 각 연구별로 사용된 측정 도구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치료와 비슷한 기간 동안의 관련 학계의 국내 노인 연구 동향도 함께 보고자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질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질환의 종류도 다양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비한 노인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향분석을 통하여 현재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 대상 음악치료 관련 석사 학위 논문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도별 연구의 빈도는 어떠하며 사용된 측정 도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 유형에 있어서의 연구 동향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4.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적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5. 음악치료 전공 연구와 음악치료 관련 분야 연구에서의 동향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 질환

노인 음악치료에서 대상자의 질환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상자가 진단 받은 질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음악치료의 목적과 치료적 접근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8년 사망원인통계결과를 보면 10대 사망원인 순위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 사고, 간 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70대, 80대의 순위만을 따로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60대와 70대에서는 자살률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의 신체적 문제점과 더불어 정신적인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0대의 경우 알츠하이머가 사망원인 순위권 10위 안에 있었다(통계청, 2008).

현재연(2006)에 의하면 문헌분석 결과 노인 음악치료가 다루는 주 대상자의 상태 분류는 전반적으로 신경과 환자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통계자료에서 언급된 뇌혈관 질환도 포함되어 진다. 노년기 질환에 대한 이해는 노인 음악치료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음악치료의 주요 질환이자 사망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들 중 노인 신경계 질환과 노인 정신 질환, 두 분류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노인 신경계 질환

노화란 살아있는 생명체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건강상태, 삶의 경험, 영양, 활동과 가계적 소인 등이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계의 노화과정은 인체내 다른 체계에 의행 영향을 받으며 전반적인 신체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중추신경계 중 노화의 영향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현저한 곳은 뇌이다. 뇌조직은 회(gyrus)의 위축, 구(sulcus)의 확장과 뇌실의 확장으로 용적의 7%가 감소되는데 특히 뇌조직 중 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대뇌 피질로 노화로 인한 대뇌 피질의 뉴런 상실이 20%나 되고 있다. 노화로 인한 신경세포의 상실은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분비하는 콜린성 신경세포(cholinergic neuron)와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성 신경(adrenergic neuron)의 분포에 균형을 깨뜨려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도파민(dopamine)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감소를 초래한다(윤혜상, 2001).

노령에 따른 임상적 변화 중 노인 음악치료에서 많이 적용되는 분야인 인지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지능이 점차 감퇴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내에서도 인지능의 변화가 영역마다 다르다. 주의력 및 집중력이 감퇴하며, 정서장애,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장애가 더 쉽게 나타난다. 언어 영역에서는 문장의 복합구성 능력은 감소하지만, 아이디어나 정보의 전달에 구사할 수 있는 단어 수는 노인에게서 오히려 증가한다. 기억의 저장과정에 있어서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각인과 검색의 과정이 약화된다. 즉 새로운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잘 저장되지 않으며 이를 검색하여 회상하는데 문제가 있다. 삼차기억은 젊은 연령층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일부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구성능력 또한 점차 감퇴하는데 특히 치매 환자의 인지장애

여부를 알아내는데 유용하다(서만옥 등, 2007).

노인들은 신경계 질환에 감수성이 높고, 이로 인한 치사율도 높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 7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에게 발생하는 신경계질환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년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성 치매는 노인에게 기억력과 다른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한다.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신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뇌피질 기능의 다발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이인용, 2000). 또한 치매는 다른 원인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질환에는 뇌혈관 질환, 감염, 수두증, 뇌외상, 뇌종양, 우울증, 염증질환, 뇌 외 신체기관의 이상, 약물, 알코올, 중금속, 용매제, 비타민 결핍 등이 있다. 이들 원인에 의한 이차적 치매도 연령 증가와 관련이 있다(서만옥 등, 2007).

노인 섬망 또는 급성 혼돈 상태는 노인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병리 증상 중의 하나이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혹은 기존에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 섬망이 잘 발생할 수 있다(강홍조 등, 2006).

심혈관 질환은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약 50%를 차지한다. 이 중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소 신경학적 결손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변미경, 2009). 뇌졸중은 혈전성, 색전성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의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혈전성 뇌졸중은 혈류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혈관의 직경을 협착시키는 죽상경화 반의 형성 과정이 뇌졸중 증상의 진행을 초래한다. 색전성 뇌졸중은 심근 경색증, 심방 세동 또는 부정맥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심근 경색증, 심방 세동 또는 부정맥 증상이 발생된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의 심부에 있

는 혈관 파열로 혈류가 차단되고 뇌조직으로 혈액이 분출되어 급성 뇌신경계 증상인 혼수와 호흡기계 문제를 가져온다. 뇌졸중은 언어, 말하기, 감각-지각, 운동, 행동유형과 기억의 7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혜상, 2001).

파킨슨병은 중년 이후 생기는 신경계 질환으로서 매우 흔한 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로 노화현상처럼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나빠지는 만성 질환이다. 이는 뇌 속의 특정부위에 퇴행변성이 일어남으로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침범되는 특정 부위는 중뇌에 위치한 흑색질을 말한다. 파킨슨병의 임상 증상은 일차적으로 특징적인 운동 증상과 그 외 이차적인 증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주요 운동 증상으로는 운동 속도의 현저한 감소, 근육 경직, 진전(tremor), 운동을 시작하는 능력이 저하된 서동, 무동 등으로 이동성의 시작이 어렵고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질질끌게 되는 보행장애 등이 있다. 또한 운동계획을 조직하는 능력에 손상이 있게 되는데 두 가지의 연속적인 동작을 빠르게 수행할 때 개개의 동작이 정상보다 더 느릴뿐만 아니라 동작의 간격도 연장된다(최옥경, 2002).

연령의 증가에 따라 파킨슨병 외에도 다양한 이상 운동 질환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이상 운동 질환은 고령이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령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노인무도병, 노인입얼굴이상운동, 입씹룩거림 등을 들 수 있다. 노년기에는 보행속도가 떨어지고 보폭도 좁아진다. 노인에게 보행장애는 흔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다. 80세 이상 노인의 20~25%가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보행을 하며 85세 이상 노인의 45%에게서 보행장애가 발생한다. 보행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보폭이 감소되기 때문이다(서만욱 등, 2007).

## 2) 노인 정신 질환

노인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수용하고 학습하며 적응하는 지적능력에서 변화가 오고 본능적 욕구인 식욕, 성욕, 활동욕 등에서도 변화가 오게 되며, 적응능력의 감소와 느긋함이 감소되어 사소한 욕망 감소에도 화를 내고 흥분하며 슬퍼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력과 집중력 부족으로 정서적 둔마 상태가 되어 자극에 대한 반응도 느려져서 활동에서 생기는 의욕도 없어진다. 심리적 노화로 현실 원칙보다 쾌락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현재연, 2002).

노인인구의 20~30%는 정신과적 질환을 보이며, 그 중에서 치매와 우울증이 가장 흔한 질환이다. 주요 노인성 질환을 살펴보면 우울증, 섬망, 치매, 인지장애,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이 있다. 노인정신장애가 잘 생기는 원인으로 사회적 역할의 상실, 독립성의 상실, 인척의 죽음, 신체건강의 악화, 외로움, 경제적 곤란,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약물사용 등이 있다(권석만, 2008).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와 섬망은 노인 신경계 질환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설명을 제외한다.

노인의 15%에서 우울증상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노인에서 우울증의 발생빈도는 높다. 노화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 예를 들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사망, 자녀들과의 이별, 은퇴나 직장 상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배우자의 신체 질병 등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를 높인다. 신체질환이나 그 치료제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기력이 떨어짐, 집중곤란 및 기억력장애, 허무감, 초조, 불면, 식욕상실, 체중감소, 신체증상 호소 등이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신체증상 호소가 두드러져서 신체 또는 신체기관 기능에 대한 망상이 많은 반면, 주관적 우울감의 호소는 적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인의 우

울증이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살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자살기도나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이정균, 김용식, 2001).

망상장애는 대개 40~55세 사이에 초발하며 다양상 망상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의심되는 가해자에 대해 폭력적이다. 노인에게서는 죽을병에 걸렸다는 병 망상도 흔히 나타난다. 원인적으로 여러 스트레스, 배우자의 죽음, 직업상실, 은퇴,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곤란, 신체 만성질병, 시청각장애 등이 유발인자가 된다(강홍조 등, 2006).

노인의 불안장애로 공화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모두 일어난다고 한다. 가장 흔한 것은 공포장애로 노인의 4~8%에서 나타나고, 그 증상은 젊은 사람보다는 덜 심하다고 한다(권석만, 2008). 노인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젊은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 건강염려증도 흔히 볼 수 있고, 노골적인 단순한 불안상태, 히스테리성 전환으로 사소한 신체증상을 과장하는 것도 관찰된다. 불안장애에는 내과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철저한 내과적 진찰이 필요하다(이정균, 김용식, 2001).

노인은 흔히 술이나 그 밖의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을 남용하거나 의존하며, 니코틴이나 카페인, 진통제, 설사제 등도 흔히 남용한다. 많은 경우 베르니케(Wernicke)병이나 코르사코프(Korsakoff)증후군을 보인다(권석만, 2008).

또한 노년기에는 불면증, 낮에 졸리움, 낮잠, 수면제 복용의 문제가 흔하다. 노년기 수면장애는 정신장애, 신체적 질환(통증, 잦은 소변, 호흡곤란 등), 사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올 수 있다(강홍조 등, 2006).

## 2. 국내 노인 연구 동향

음악치료에서의 치료적 영역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 치료의 경우 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간호학의 경우 의료 처치 및 환자 돌봄이 모두 다루어지는 학문으로 그 동향 분석이 음악치료의 연구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노인 간호와 관련하여 송미순 등(2002)은 노인들이 여러 개의 질환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개의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광희 등(2001)도 노인병은 의학의 단독 접근으로는 치료가 안되고 반드시 다학제적 접근에 의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예로 비약물적 간호 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음악요법 연구들(김주희, 백설향, 2008)은 음악치료와 간호학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학은 음악치료에서의 정신적 치료의 기준이자 도구로서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음악치료의 치료 영역 중 정서 및 행동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진단 준거 및 측정 도구는 대부분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표 2. 참고). 따라서 심리학의 연구 동향 분석은 음악치료 중 정신적 치료 연구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외에 간호학과 심리학의 노인 연구 동향을 선택한 근거로는 김수희(2002)의 음악요법/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음악치료 비전공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가 간호학과 심리학 분야였다. 임진석(2006)의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의 메타분석에서도 음악치료 비전공자 연구 중 간호학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과 심리가 3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간호학과 심리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음악치료 전반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노인 대상의 비약물적 중재 요법으로 음악치료 외에 미술

치료, 원예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무용치료, 웃음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각 치료를 검색하고 결과내 검색으로 노인을 검색한 결과 운동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의 순으로 논문 건수가 많았다. 운동치료의 경우 검색된 논문 중 운동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논문의 수가 많았고, 동향 분석이나 내용 분석 논문이 없었다. 따라서 음악치료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수의 동향분석 연구가 이루어진 미술치료와 원예치료를 통해서 음악치료의 방향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1) 간호학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노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춘길, 2005).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노인 건강에 관한 국내연구 분석(김명애 등, 2002)을 보면 실험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중재 프로그램으로 운동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김춘길(2004)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의 국내 간호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노인 간호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설계에서는 양적연구가 많았으며 그 중 65세 이상의 연령대, 일반노인, 재가 노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주제별로 보면 건강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의 우울, 건강상태, 신체건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of Daily Living, IADL)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노인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편의 실험연구에서는 10종류의 간호중재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운동관련 중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요법이 많았다.

김춘길(2005)의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내 간호학회지의 노인 논문

분석에 의하면 2004년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양적 연구 중에서도 실험연구는 18.7%, 비실험연구의 비율은 58.1% 였다. 또한 노인 간호 주 개념 별로는 건강, 간호, 복지, 환경, 인간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역별로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건강신념, 운동과 양질의 삶에 대한 영역들의 연구들이 있었다. 실험연구 분석결과 26가지의 간호 중재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운동과 율동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보완이나 대체요법을 간호중재로 사용한 연구는 15편으로 그 방법도 음악요법을 비롯하여 원예, 미술, 발요법, 수지뜸, 경추경락 마사지 등 다양하였다. 또한 건강증진 행위가 가장 많이 연구 되었으며 우울, 가족부담감등도 연구 되었다.

최근 연구로 김선호와 송미순(2008)이 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관련한 비약물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논문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인 고혈압 중재 방법에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식이 체중 감소 다음으로 이완 및 대체요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인 간호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이 양적 연구이며, 중재요법으로 운동요법과 음악치료 같은 보완, 대체 요법이 노인 간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학에서는 최근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한 연구(최금봉, 2008)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간호학에서의 노인 연구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 2) 심리학

정태연(2008)은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서 다룬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역

사적 고찰과 미래의 과제 제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지난 1980년부터 2008년까지 30여 년간 발행된 한국노년학회의 한국노년학에 실린 심리학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것으로써 심리학에서의 노인 연구의 동향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분석 대상 논문이 총 130편이었는데 타 학문의 기초학문 중의 하나로써 관련 연구가 130편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양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연구 편수도 불안정한 편이었으며 연도에 따라 편차가 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많은 연구가 발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경험적인 연구가 지나치게 많았는데 130편 중 경험적인 연구가 119편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 연구의 전형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도 우울, 스트레스, 자존감과 같은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과 여가에 관한 연구가 60%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 주제가 좀 더 다양해질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화 및 비교연구가 총 6편으로 매우 저조 하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의 노인 연구에서도 방법의 다양성과 주제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심리학에서는 노인 연구 관련 주요 척도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미경과 이규미(2009)는 한국노인 상실감 척도 구성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총 2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척도가 한국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상실의 문제들과 관련된 감정 상태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만족할 만한 척도라고 결론지었다. 강연욱(2006)은 치매선별도구로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the Korean -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K-MMSE)에서 노인 기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K-MMSE를 평가함에 있어 교육수준, 나이 및 성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임을 주장 하였다. 또한 이형석 등(2009)

은 노인삶의질척도의 표준화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노인 34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및 임상 장면에서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노인 관련 심리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표준 연구는 그 척도를 사용하는 많은 관련 학계 연구의 정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미술치료학

국내에서의 미술치료는 1990년대 중, 후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치료 학위과정이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만 800개가 넘는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내 미술치료 학회들을 주축으로 학회지를 발간하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수빈, 2007).

김수빈(2007)의 주요 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연구 내용에 있어서 과정성과연구<sup>1)</sup>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과연구<sup>2)</sup>, 과정연구<sup>3)</sup> 순이었다. 이는 미술치료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사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두 가지 연구가 병행된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양적연구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별 동향을 살펴보면 만 7세 이상부터 초등학생이 3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 성인이 29.9%였다. 노인은 4.3%로 만 0에서 3세와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 
- 1) 미술치료 과정과 성과를 함께 연계 시키는 연구로 과정과 성과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담고 있는 연구를 말한다(김수빈, 2007).
  - 2)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없이 미술치료 및 특정한 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말한다. 즉 사례보다 치료 효과에 비중을 두고 있는 연구를 말한다(김수빈, 2007).
  - 3) 치료성과에 대한 자료 없이 미술치료에 관한 과정만 제시 분석된 연구를 말한다(김수빈, 2007).

최애옥(2007)의 국내 발표 미술치료 관련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 분석에 따르면 병리를 대상으로 한 논문보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한편도 없었었다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이창정과 이미옥(2008)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인 미술치료 학위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0년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한국 노인 미술치료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학적 진단을 받은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그 질환으로는 치매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졸중 24.2%, 만성질환 14.5%이었으며, 파킨슨이 6.4%로 가장 낮았다.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병행되어 사용된 통합적인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 내용에는 정서적인 주제가 4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 영역이 25.6%, 인지영역이 19.2%를 나타냈다. 김수빈(2007)의 미술치료 전반적인 분석과 비교하면 노인 미술치료에서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더 많았다는 것과 목적 영역에서 정서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었다.

정리해보면 내용 분석 선행 연구 결과 미술치료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무기력하기 쉬운 노인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삶의 질적인 부분들을 위한 미술치료의 접근이 필요하다.

#### 4) 원예치료학

국내 원예치료가 도입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교육기관, 복지시설, 병원 및 재활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원예치료가 시행되면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지승은, 2009).

오대민 등(2006)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내 원예치료 관련 학술지 논문 중 치료 성과 연구에 대한 대상자별 프로그램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82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조사되었으며 원예치료 대상자별로는 정인지체 대상의 원예치료 논문이 219편, 치매 관련이 152편, 정신분열이 199편, 우울증 78편, 뇌손상 환자 57편, 노인 98편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를 치매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두 대상을 합산할 경우 전체 대상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세희(2007)는 원예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약 15년 동안의 원예치료와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97편을 대상으로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의학적 증상별 분류에 따른 논문 빈도 분석에서 정신분야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가 25.7%로 가장 많았고 정서장애 15.7%, 치매노인이 10%로 나타났다. 재활분야에서는 뇌졸중이 4.3%, 뇌손상이 1.4%로 나타났다. 주로 정신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상자 연령별로는 아동이 30.7%, 성인이 28.6%, 노인이 22.9%, 청소년 17.9%의 순으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된 기관은 주로 복지기관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지만을 사용한 연구가 31편으로 22.1%였으며, 30%이하 이거나 이에 대해 기재되지 않은 연구가 96편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예치료의 효과성 분석에서는 발달장애를 비롯하여 정서장애, 치매노인에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지승은(2009)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예치료 석,박사 학위논문 203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별 현황은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별 연구 동향에서는 평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치료에서의 노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비약물적 중재 프로그램보다 활

발한 편이며 그 효과성 면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내 노인 음악치료

#### 1) 노인 음악치료 연구 현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음악치료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연구의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노인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억력, 주의집중력, 자기표현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인지기능과 우울 등의 정서, 행동 및 심리증상을 치료 영역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의 음악적 잔존능력이나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 참여도 연구도 있었다(이혜원, 2006).

치매 노인은 질병 말기 단계까지 구조화된 음악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중 마지막 단계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참여하는 활동은 악기연주와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한다(이혜원, 2006). 그리고 대상자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감정적 기술을 강화시키며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다(Brotons, 1997).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로 이인용(2000)의 치매 노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 연구에서는 악기 연주활동이 참여 지속시간에 유의미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김영애(2002)는 중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능의 손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소외되고 방치되어지는 중증 치매 노인환자들도 다양한 음악적인 자극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에서 리듬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송효숙(2001)은 국악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김정아(2003)는 리듬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노인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경증, 중등도인 치매 노인 대상자에게 창의적 동작중심의 음악치료를 시행해 신체표현능력의 향상과 긍정적 감정 상태로 변화된 김정아(2005)의 연구처럼 기능이 좀 더 나은 치매 노인의 경우 그에 맞는 활동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뿐만이 아니라 정서, 정신행동증상에도 음악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류기광(2007)의 연구와 같이 다영역의 동시적 치료 접근 방법도 음악치료의 가장 큰 장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치매노인에 대한 음악치료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료적인 면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에서 실어증이나 편마비 환자의 편측 무시와 같은 신경학적 음악치료 연구도 있었으나 대부분 우울과 자아존중감,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치료에 목적을 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도경(2005)은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변화에 대한 멜로디억양치료법(Melodic Intonation Therapy, 이하 MIT) 연구를 통해 발화 성공률의 증가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가은(2005)은 치료적 음악활동이 좌측 편마비 노인 환자의 편측 무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및 신경학적 음악치료의 적용으로 노인 대상 음악치료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재활의 목적을 가진 신경음악치료는 마이클 타우트(Michael Thaut)와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음악생의학연구센터(Center for Biomedical Research in Music, CBRM)의 연구원들이 발달시켰다. 신경음악치료는 음악이 가진 요소들을 사용하여 뇌손상 환자의 인지부터 언어, 신체적 기능까지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함께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뇌졸중, 파킨슨 증후군,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손상 어른과 어린이 대상자들의 신체 재활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정현주, 2006).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노인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화로 인한 뇌의 민감성이 더욱 커지고 뇌졸중과 관련한 질

병 등에 대한 공포와 불안, 삶에 대한 의지 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불안에 대한 음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음악치료가 뇌졸중 노인의 고독감과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옥(2008)은 음악치료를 통하여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인 뇌졸중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는 신체적 재활과 정서 회복이 모두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파킨슨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연구로 최옥경(2002)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의 운동성과 정서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특히, 무운동, 서동, 연속적이고 목적성 있는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파킨슨 환자를 위해 즐거움과 동기를 느끼게 하면서도 운동성을 유발시키는 리드믹 음악활동에 기반을 두어 활동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운동성 장애, 우울, 언어 장애를 보이는 파킨슨병에 대한 증상별 음악치료 접근은 비약물적 치료로서 큰 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집단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사회·심리·신체·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수준이 떨어지며 특히 사회적 지지도도 무척 낮다(박혜령, 2004). 또한 입소와 동시에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상실감과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시설 노인이 겪는 대표적인 정신 건강 문제는 우울이 있다. 따라서 시설 및 입원 노인들을 위한 음악치료의 목적은 주로 사회성,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우울감, 고독감의 감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주희, 2000). 구민재(2008)는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그룹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프로그램 실시 후 생활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유미나(2009)도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타악기 연주를 실시한 후에 우울감 감소와 생활만족도 향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주미(2003)는 시설 노인과 재가 노인의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을 비교함으로써 시설 노인에 대한 음악치료 접근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핵가족화 및 분가로 인해 그 수가 점차 증가될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주로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음악치료 연구들은 우울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고독감, 무력감, 노년기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목적이 많았다(홍인실, 2008). 노화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정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가창성역<sup>4)</sup>에 대한 연구(임영란, 2001)나 음악 선호도 연구(김경혜, 2001)의 경우 노인에 대한 음악치료의 기초적인 연구로서 노인이라는 대상을 접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2) 노인 음악치료 관련 내용 분석 선행연구

정은이(2001)가 1973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음악치료 관련 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발표 연구문헌에 대한 최초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닌 주제 및 대상별 분류에 대한 연도별 빈도 분석이었다. 결과 내용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논문이 한 편도 연구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효성(2002)은 1989년부터 2001까지의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 관련 음악치료 석사논문의 경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매를 정신과 범주에 넣어 포함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질환으로 분류한 점이 다르다. 분석 내용은 진단분류, 연구유형, 자료 수집 방법, 측정도구 및 조사도구, 연구자 전공이었으며 총 2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

4) 편안한 음고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범위의 평균 하한음과 상한음 및 성역폭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임영란, 2001).

김수희(2002)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내 음악치료 관련 문헌 분석에 국내 최초로 메타 분석 양식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에 적합한 3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음악치료의 효과는 언어 차원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유형별로 효과를 보면 신체 생리적 고통이나 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체, 생리적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연령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 일반성인, 중고생, 영유아, 대학, 대학원생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는 구체적 대상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성인들에게 음악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신우영(2005)은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내 발표된 음악치료 문헌 256편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경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의 파악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측정도구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2차 분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분석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대상별 분석에서 다른 대상에 비해 노인 대상의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분석 내용은 연대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치료영역, 전공 및 관련 학계에 관한 것이다.

현재연(2006)은 퍼브 메드(Pub Med)라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수집된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외 노인음악치료 연구 154편의 치료목표 및 음악치료활동 형태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분석 논문과는 달리 노인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연대별 치료영역, 노인 질환, 음악치료 활동/개입/기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영화(2009)는 미국의 음악치료 학술지인 저널 오브 뮤직 테라피(Journal of Music Therapy, JMT)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0년간의 노인 영역 논문은 총 22편으로 전체 대상별 연구 중 10.67%의 낮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중 치매노인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엔진으로 “음악치료”, “노인”, “치매”, “알츠하이머”, “혈관성”, “뇌졸중”으로 검색된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석사학위 논문 중 그 내용과 주제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관련 논문 58편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자는 연구의 방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58편의 수집된 자료들을 5가지 연구문제에 맞게 연대별로 각각 분류하고 유목화 하였다. 그리고 각 문제에 맞게 빈도수와 백분율을 기록하였다, 세부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 총 58편을 읽고 이영화(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 시트(coding sheet)를 연구자가 목적에 따라 변형한 것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대상 논문들의 분석유목을 나누고 코딩 시트(coding sheet)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셋째, 첫 번째 분류가 끝나고 난 다음 수정 및 보완하여 이를 다시 정리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연구문제에 맞게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였다.

### 3. 분류기준

#### 1) 연구의 유형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젤리슨(Jellison, 1973)의 분류 기준인 기술 연구, 실험 연구, 역사 연구, 철학 연구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에 따른 분류가 맞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연구, 실험 연구, 질적 연구, 두 가지 연구법이 사용된 병행연구로 분류하였다.

#### 2) 연구의 대상

현재연(2006)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 상태에 따른 대상자들 분류를 재활, 장기요양환자, 검사환자, 내과질환자, 외과환자, 신경과환자, 정신과환자, 호스피스, 그리고 기타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외 문헌분석 연구로 우리나라 연구 대상자와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질환 대상,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노인 그리고 질환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한 혼합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 3) 목적 영역

신우영(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음악치료 영역인 사회정서 영역, 인지행동 영역, 언어의사소통 영역, 감각운동 영역 그리고 새롭게 대두된 생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목적 영역을 언어, 주의 집중력, 시공간과 관련한 인지 영역, 행동을 측정하는 행동 영역, 생리적 변화 측정과 관련된 생리 영역,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 및 표현과 관

런한 정서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사회 영역, 신체적인 운동기능이나 발성, 호흡 등과 관련된 운동영역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 4) 전공 및 관련분야

음악치료 전공자의 연구 논문과 관련 분야의 음악치료 연구 논문을 비교하기 위해 음악치료 연구를 실시한 타 전공을 관련 분야로 통칭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코딩한 자료를 연구자의 용도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결과는 실수와 백분율로 그 빈도를 나타내었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노인 음악치료 국내 석사학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로 연구유형과 연구 대상, 목적 영역, 전공분야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연구문제에 제시된 유목에 따라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 1. 연도별 연구 개관

#### 1) 연도별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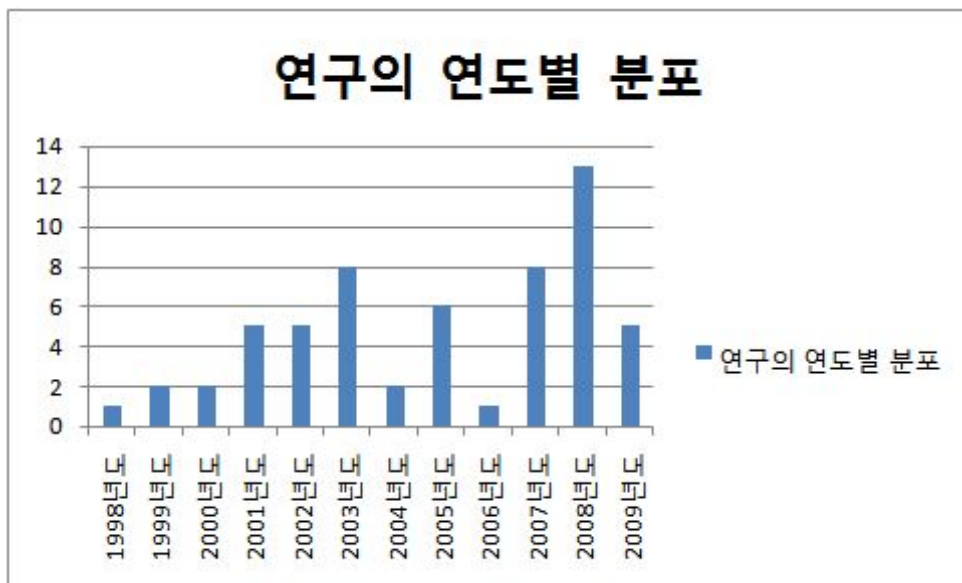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노인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를 다시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1>을 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연구가 증가하다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인 2009년도에는 그 수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신우영(2005)의 음악치료 전반에 대한 논문 분석에서는 다른 대상자 보다 노인 대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한 것이고 본 연구는 2009년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한 것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연구들이 이전에 비해 더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노인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노인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분포

연도	합계	연도	합계
1998	1	2005	6
1999	2	2006	1
2000	2	2007	8
2001	5	2008	13
2002	5	2009	5
2003	8	-	
2004	2	합계	58

<그림 1> 연구의 연도별 분포



## 2) 측정도구 분류

박선경(2005)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Health, ICF) 연구에서 신체 기능은 신체 계통의 생리학적 기능과 심리학적 기능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노인 음악치료 연구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측정도구의 종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심리적 기능, 생리적 기능 측정 도구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에 음악적 기능을 추가하여 모두 세 분야로 분류해 보았다.

### (1) 심리적 기능 측정 도구

심리적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정리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모두 31개의 도구가 사용 되었으며 그 중 주요한 도구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측정 도구 분석 결과 심리학적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노인우울척도로 16개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노인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우울진단의 증상 항목이 다르고 심리 평가에 있어서도 더 회피적이고 저항적인 편이므로 노인우울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나미희, 1999).

1983년 예사베이즈(Yesavage) 등이 노인용 우울척도로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철원, 정인과, 조맹제 등이 번역하였다. 이것이 GDS 척도를 번역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DS-K)’이다. 그러나 문화권이 다른 한국 노인들의 우울 증상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정인과(1997) 등이 한국 상황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한 ‘한국형노인우울척도(KGDS)’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

정도구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형노인우울척도(KGDS)’의 사용 빈도가 63%로 더 높았다. 이 척도는 대상자가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척도로서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어진 도구는 인지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MMSE)’로 13건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인지 기능 유무 측정을 위한 선별도구이다. 매우 간편하고 피검자를 당황하게 하는 문항이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훈련만 받은 검사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5점 이상은 ‘확정적 정상’, 21-24점은 ‘인지기능 장애 의심’, 20점 이하는 ‘확정적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된다(이정진, 2007).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두 가지 형태의 MMSE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형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로 1975년 개발한 당시의 MMSE의 문항을 가능한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이정신상태 검사-한국판(MMSE-K)로, 문맹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변경하여 번안한 것이다(김천오, 2008).

노인 대상의 정서 측정을 위해 노인우울척도와 함께 많이 사용된 도구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Inventory)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로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박혜령, 2004).

<표 2> 심리적 기능 측정 도구

도구명	개발자 및 번역자	측정항목	치료목적 영역
한국판노인우울척도(GDS-K)	기백석과 이철원(1995), 정인과(1997) 외, 조맹계 외(1999)	우울증상	정서
한국형노인우울척도(K-GDS)	정인과 등(1997)	우울증상	정서
우울척도(BDI)	Beck(1967), 이영호(1993)	우울증상	정서
DLS 고독척도	Schmidt와 Sermat(1997), 박선희(1997) 사용	고독감, 소외감	정서
UCLA 고독척도	김옥수(1997) 번역 및 수정	고독감	정서
무력감 측정도구	Miiler(1983), 김조자(1992), 전신아(1992), 박정문(2001)	무력감	정서
정서평가문항(MAACL)	이은영(1991)	정서상태	정서
기분상태검사(POMS)	윤재량(1993)번안, 신윤희(1996)수정	기분변화	정서
14증상별 행동 및 정서 측정도구	R.J. Wyatt와 D.J. Kupfer(1968)	행동, 정서반응	정서, 행동
자기표현평정척도	변창진, 김성희(1980) 재구성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표현	인지
신체표현능력검사도구	배현숙(1990)	신체표현능력변화	인지
자아존중감척도(SEI)	Rosenberg Scale을 전병재 번안(1974)	자아존중감	정서
자아통합감척도	김정순(1988)	노년기 심리적 안녕상태	정서
노인생활만족도척도	윤진(1982)	만족도	정서
사회적행동능력척도	김영숙(1997) 번안	사회적행동능력	사회
사회적회피및불안척도(K-SAD)	이정윤과 최정훈(1997) 번안	사회적회피 및불안	사회, 정서
의사소통능력척도	김영숙(1997) 번안	의사소통능력	사회
대인관계변화척도	문선모(1980)번안, 전석균(1995)이 신뢰도 검증	대인관계증진	사회
부양부담사정도구	권중돈(1997)	부양부담	정서
간이정신상태검사-한국판(MMS E-K)	박종한 외(1989) 번안	인지기능	인지

도구명	개발자 및 번역자	측정항목	치료목적 영역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박종한, 권용철(1989) 번역	인지기능	인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이동영(2002)	인지기능	인지
치매노인삶의질척도(GQOL-D)	Logsdon 등(1999), WHOQOL Group(1993), 민성길 등(2000)	치매환자삶의질	정서
파킨슨환자의 삶의 질 척도(PDQL)	Boer(1996)	파킨슨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정서
임상치매등급검사(CDR)	최성혜 등(1982) 번안	치매등급	인지
헤이친스키 허혈 점수표 (Hachinski Ischemic Scale)	-	치매유형구분	인지
일상생활척도(ADL or S-ADL)	대한노인정신의학회(2003)	일상생활가능수치	인지
단일화된파킨슨병계측도(UPDRS)	Fahn(1987)	파킨슨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운동기술	인지, 운동
신경정신행동검사(NPI-Q)	Kaufer 등(2000)	치매환자 이상행동	인지, 행동
활동과 감정변화 도구(치매환자)	Doolley(2002)	감정상태	정서
시지각기능검사(MVPT)	Bouska와 Kwantny(1983)가 개정	편측무시, 시지각	인지
Albert Test	Albert(1973)	편측무시 검사	인지
선나누기검사	Schenkenberg(1980)	편측무시 검사	인지
전반적황폐척도(GDS)	-	치매임상상태구분	정서

## (2) 생리적 기능 측정 도구

생리적 기능을 측정한 결과를 연구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표 3>에 기술된 이러한 측정 방법은 의료계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해당 연구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리적 기능 측정 중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코티졸(Cortisol)의 농도를 측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혈액 중 코티졸의 농도를 통해 스트레스의 변화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혈액 중 코티졸의 농도가 정상범위보다 낮을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미진, 2007).

근육의 긴장 강도를 측정하는 근전도(electromyogram, EMG)는 악기 연주와 신체 활동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적절한 측정 방법이다(문서란, 2002).

뇌파는 두피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위로 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수반되어 생성되는 전기적 변화를 머리표면에 부착한 전극에 의해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전기신호이다(박정미, 2007). 뇌파를 측정하는 뇌파측정기(Electroencephalogram, EEG)를 통해 음악치료의 자극으로 인한 대상자의 뇌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음악치료의 효과를 생리적 결과로 증명하는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검사 도구로는 측정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현재 비록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리적 기능 측정 방법의 사용으로 음악치료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생리적 기능 측정 도구

도구명	측정방법	측정기준	치료목적 영역
뇌파측정(EEG)	두피의 전위적 변화측정	뇌파를 이용한 뇌의 상태 변화	생리
근전도(EMG)	근육에 전극 부착	근육 긴장 강도	생리
중성지방척도(mg)	공복상태에서 채혈	혈중 중성지방 수치	생리
콜레스테롤척도(TC/HDL)	공복상태에서 채혈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비율	생리
코티졸(Cortisol)	공복상태에서 채혈	정상범위- 오전 9.4~26.0( $\mu\text{g}/\text{dl}$ ), 오후 1.8~12.7( $\mu\text{g}/\text{dl}$ )	생리

### (3) 음악적 기능 측정 도구

음악치료 연구 실적에 비해 음악적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표 4>에서와 같이 그 종류가 많지 않았다. 그 중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적잔존능력검사(Residual Music Skills Test, RMST)는 치매노인의 음악적 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인데 RMST-K는 이를 한국의 정서에 맞게 노래와 곡을 선정하여 적용한 도구이다.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최대점수가 80점이다. 음악적 기억 과제는 기능하는 언어와 단어회상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장기기억에 대한 음악적 측정이다(나혜원, 2006).

노인 음악치료에서의 멜로디 억양기법(Melodic Intonation Therapy, MIT)은 노인 실어증 환자에게 언어의 회복과 축진의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 재활치료의 하나이다(현재연, 2005). 홍도경(2005)은 이 기법을 사용하여 세션을 진행하고 환자의 구어적인 언어에서의 단어말하기의 음절 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즉흥연주사정분석표와 같은 도구는 즉흥연주기법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의

성과 기술에 도움이 된다(박정미, 2007).

이러한 음악적 기능의 측정을 통해 치료사들은 대상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 연구 디자인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 기능과 치료목적의 연관성을 통해 치료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표 4> 음악적 기능 측정 도구

도구명	개발자	측정항목	치료목적 영역
Vocal Range Check Form	Kuhn, Wachhaus, Moore, Pantle(1979)	자극음에 대한 발성음	운동
음악적잔존능력검사(RMST-K)	이은재(2000) 번안	치매노인 음악적 행동	인지, 행동
Rey-Kim 언어기억검사(K-AVLT)	김홍근(1999) 수정	단어기억	인지
MIT(멜로디역양기법) Manual	Albert 등(1973)	음절	인지, 운동
리듬기억과제	김장희(2004)	리듬패턴	인지
즉흥연주사정분석표	Bruscia(1987)	음악적 요소와 구성요소의 통합, 변형, 긴장, 일치, 대표성, 자율성 분석	정서

## 2. 연구 유형별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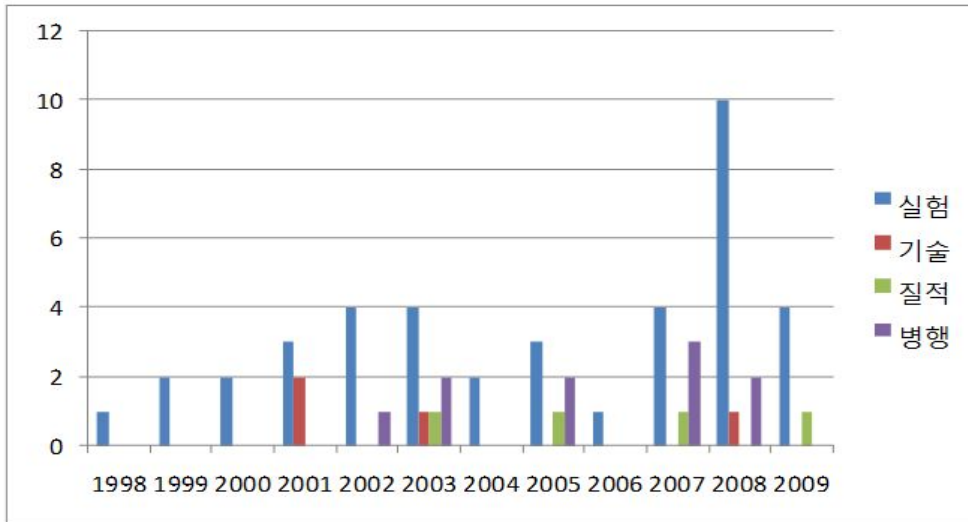
### 1)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

연대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실험연구가 69%로 가장 많았다. <그림 2>를 보면 2002년 이후 부터 노인대상의 질적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적, 질적 두 가지 연구법을 병행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병행 연구에서 질적·기술연구는 2건, 질적·실험연구는 5건, 기술·실험연구는 3건 이었다.

<표 5>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 분포

연도	실험	기술	질적	병행	합계
1998	1				1
1999	2				2
2000	2				2
2001	3	2			5
2002	4			1	5
2003	4	1	1	2	8
2004	2				2
2005	3		1	2	6
2006	1				1
2007	4		1	3	8
2008	10	1		2	13
2009	4		1		5
합 계	40	4	4	10	58
백분율	69%	6.9%	6.9%	17.2%	100.0%

<그림 2>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유형 분포



신우영(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치료 전반적으로 실험연구와 기술 연구의 실적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2001년 이후로는 기술연구보다 실험연구의 비중이 더 많았다. 노인 대상의 연구에서도 실험연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악치료 전반에서 연구 유형이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2) 연구 유형에 따른 측정도구

연구 유형에 따라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표 6>에서와 같이 실험 연구에서는 심리적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음악적 도구와 생리적 도구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병행연구에서도 심리적 도구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측정도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2008년도에는 오

히러 심리적 도구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연구 유형과 측정도구

연도	실험			기술			병행			합계
	심리	음악	생리	심리	음악	생리	심리	음악	생리	
1998	1									1
1999	3		2							5
2000	1									1
2001	3				1					4
2002	7		1							8
2003	6						2			8
2004	5									5
2005	5	1					3			9
2006		1								1
2007	9		1				5	2	1	18
2008	17						2			19
2009	8									8
<b>합계</b>	65	2	4		1		12	2	1	87

### 3. 대상자별 연구 동향

#### 1)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대상을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신경질환 대상자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노인에 대한 연구는 28.3%로 나타났다. 한정아(2005)는 노인 뇌졸중 부부를 대상으로, 이인애(2009)는 치매 어머니와 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혼합대상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그림 3>을 보면 2007년도에는 신경질환 대상자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경질환 대상자 중 치매노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인 뇌혈관 환자가 12건, 파킨슨 환자가 1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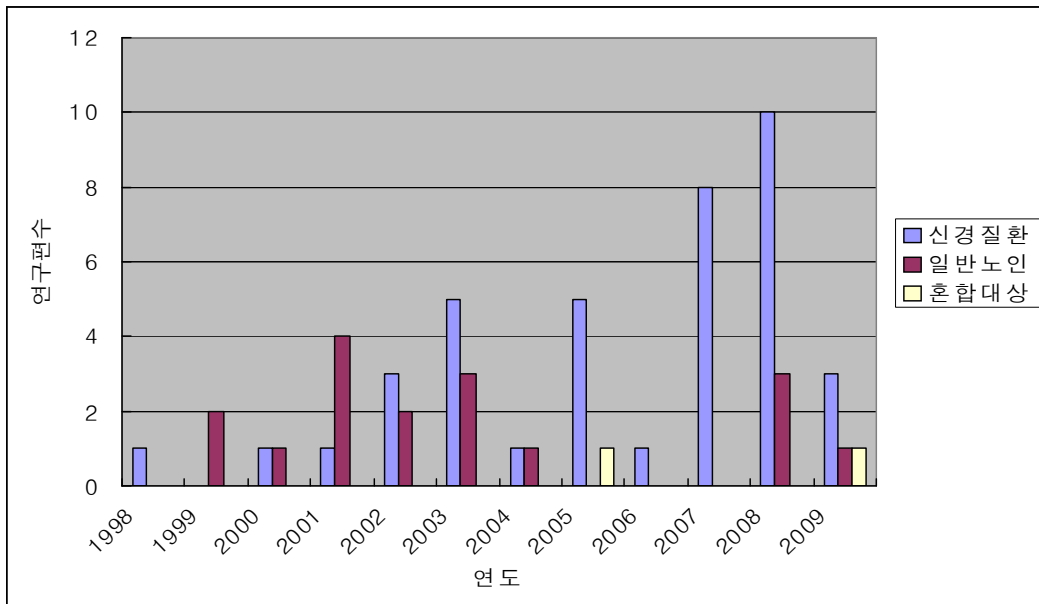
일반노인 대상의 연구 중 시설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노인복지관의 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었다. 시설거주 노인에 대한 관심은 점차 가족의 분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재가노인보다 시설거주 노인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설 거주나 병동입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정서 상태나 사회성과 관련된 논문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선행 연구와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우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치료 연구 대상별 분석결과 정신과, 장애아동, 노인, 일반의료, 기타의 대상자 중 노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연구도 미흡한 가운데 노인 대상자 중에서 질환별 대상자의 범위도 좁다는 것은 현재 노인 대상 음악치료가 편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연도	신경질환노인	일반노인	혼합대상	합계
1998	1			1
1999		2		2
2000	1	1		2
2001	1	4		5
2002	3	2		5
2003	5	3		8
2004	1	1		2
2005	5		1	6
2006	1			1
2007	8			8
2008	10	3		13
2009	3	1	1	5
<b>합 계</b>	<b>39</b>	<b>17</b>	<b>2</b>	<b>58</b>
<b>백분율</b>	<b>67.2%</b>	<b>29.3%</b>	<b>3.5%</b>	<b>100%</b>

<그림 3>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분포



현재연(2006)의 노인 대상 음악치료 국외 문헌 연구 분석에 따르면 1990년에서 1999년까지는 신경과 환자 16건, 내과질환자 8건, 정신과 환자 7건, 외과환자 5건, 호스피스 4건, 기타 3건, 검사 환자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신경과 환자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과 환자가 20건으로 많았다. 특히, 이 시기의 대상자들은 다양한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노인 대상 음악치료 문헌 분석 결과 주 대상자 상태로 신경과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국내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대상자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국외의 노인대상 음악치료는 신경질환 외에 다양한 질환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가 신경질환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 2) 연구 대상에 따른 측정도구

연구대상에 따른 측정도구의 사용을 보면 다음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질환 노인에게서 심리적 도구의 사용이 5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악적 도구의 사용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인의 경우 심리적 도구의 사용이 26.1%, 음악적 도구의 사용이 4.3%로 나타났다. 신경질환 노인과 일반노인 대상 모두에게서 심리적 도구의 사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경질환 노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노인의 경우 다른 대상군에 비해 질적 연구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일반노인의 경우 신경질환 노인보다 생리적 도구가 더 사용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것은 혈액을 채취하거나 뇌파, 근전도 등을 측정하는 생리적 도구가 몸이 불편한 신경질환 노인들보다 일반 노인들에게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표 8> 연구 대상과 측정도구

연도	신경질환노인			일반노인			합계
	심리	생리	음악	심리	생리	음악	
1998	1						1
1999				2	2		4
2000				1			1
2001				3		1	4
2002	5			2	1		8
2003	7			1			8
2004	2			3			5
2005	8		1				9
2006			1				1
2007	7	1	2				10
2008	5	1		4			10
2009	6			2			8
<b>합계</b>	41	2	4	18	3	1	69
<b>백분율</b>	59.4%	3.0%	5.8%	26.1%	4.3%	1.4%	100%

## 4. 목적 영역별 연구동향

### 1)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목적 영역

노인 음악치료의 치료 목적 영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9>와 같이 정서 영역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인지 영역이 27.6%를 나타냈다. <그림 4>에서는 2001년 이전까지 행동 영역의 연구가 계속되다가 그 이후로는 인지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현재연(2006)의 국외 노인 대상 문헌 분석의 경우 치료영역을 인지, 언어, 운동, 생리, 정서, 사회, 통증의 7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정서 영역의 연구가 54.6%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영역을 인지 영역에 포함시켜서 24%였으며, 현재연(2006)의 연구에서는 인지와 언어 영역을 합산할 경우 25%였다. 이 결과를 보면 국외와 국내의 치료 영역별 연구 동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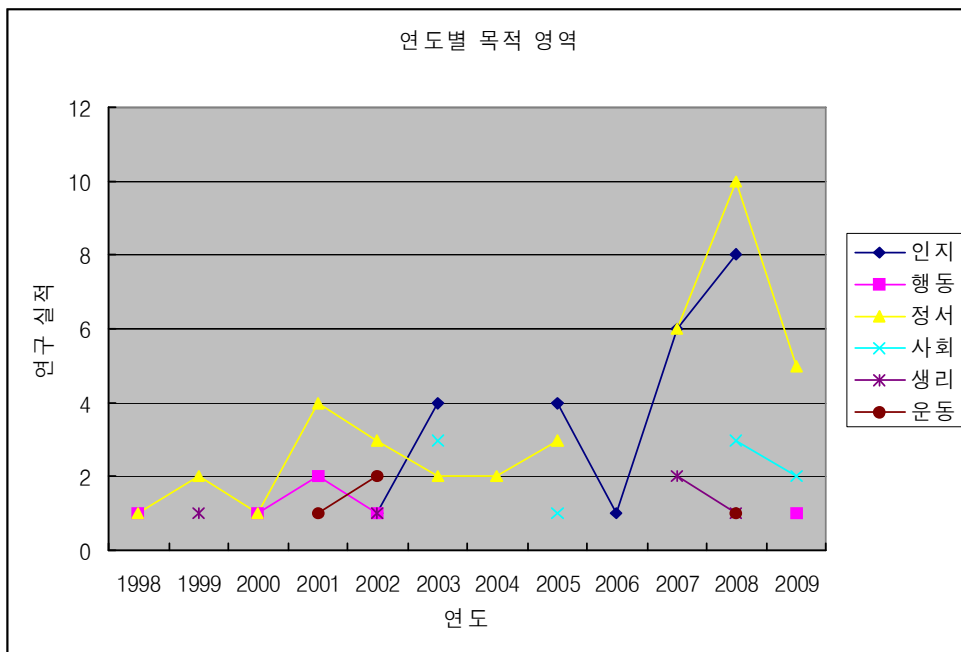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적인 연구에 편중된 연구 경향을 보이는 것은 측정 방법에 있어 공인된 심리 평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정서적인 연구의 편중에는 사용도구의 영향도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심리학에서의 연구 동향 중 노인 대상 척도에 대한 타당도 및 기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 도구 사용의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신체적 질환이 없더라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일반 노인 대상의 음악치료에서 정서적인 목적의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표 9>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목적 영역

연도	인지	행동	정서	사회	생리	운동	합계
1998		1	1				2
1999			2		1		3
2000		1	1				2
2001		2	4			1	7
2002	1	1	3		1	2	8
2003	4		2	3			9
2004			2				2
2005	4		3	1			8
2006	1						1
2007	6		6		2		14
2008	8		10	3	1	1	23
2009		1	5	2			8
<b>합 계</b>	24	6	39	9	5	4	87
<b>백분율</b>	27.6%	7.0%	44.8%	10.3%	5.7%	4.6%	100.0%

<그림 4> 연도별 노인 음악치료 목적 영역 분포



## 2) 목적 영역에 따른 측정도구

목적 영역에 따른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정서 측정 도구가 50%, 인지 측정 도구가 32.3%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나머지 행동, 사회, 생리, 운동의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측정 도구 사용에 있어서도 목적 영역 에서처럼 편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 방법과 도구 사용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같은 목적에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연구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그 결과가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음악치료 목적 영역별 측정도구 사용 빈도

연도	인지	행동	정서	사회	생리	운동	합계
1998		1	1				2
1999			3		2		5
2000			1				1
2001			3			1	4
2002	1		5		1	1	8
2003	5		2	2			9
2004	1		4				5
2005	7	1	3	1			12
2006	1						1
2007	7	1	7		1		16
2008	8		12	2	1		23
2009	1	1	7	1			10
<b>합 계</b>	31	4	48	6	5	2	96
<b>백분율</b>	32.3%	4.2%	50.0%	6.2%	5.2%	2.1%	100.0%

## 5. 전공 및 관련 분야별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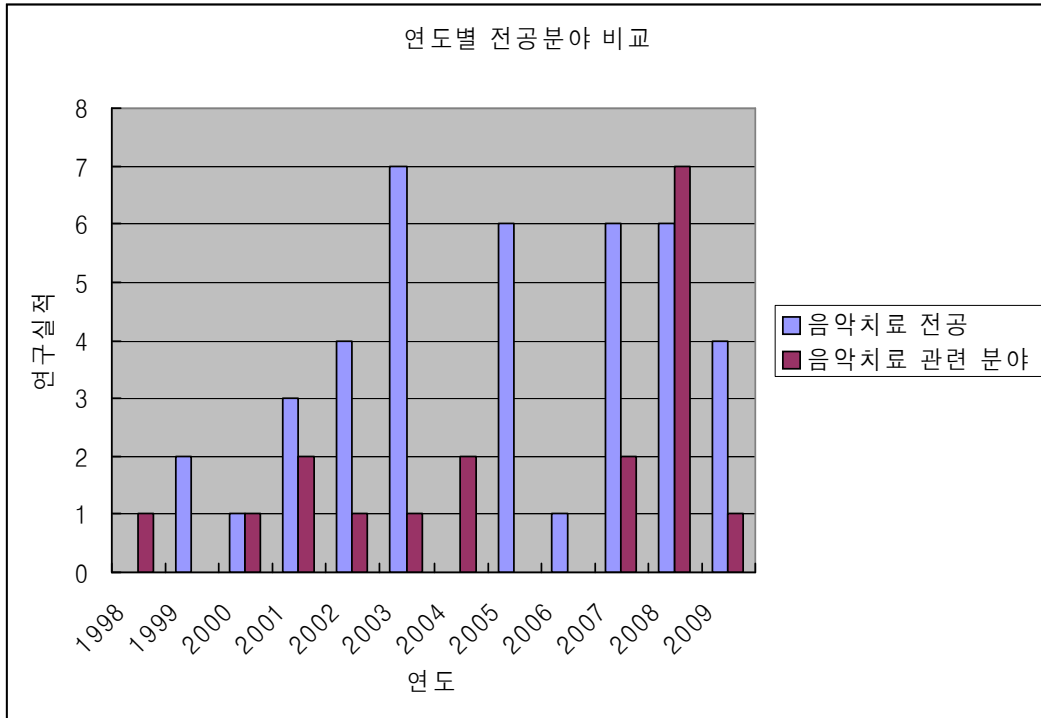
### 1) 연대별 노인 음악치료 전공분류

연대별 노인 음악치료의 전공분류의 결과 <표 11>을 보면 음악치료 전공 연구가 69%, 관련분야의 음악치료 연구가 31%로 노인 대상 음악치료 연구에서 전공 연구가 관련분야 보다 약 2배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2004년와 2008년도의 경우 전공분야의 연구활동이 더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연대별 노인 음악치료 전공분류

연도	음악치료 전공	음악치료 관련 분야	합계
1998		1	1
1999	2		2
2000	1	1	2
2001	3	2	5
2002	4	1	5
2003	7	1	8
2004		2	2
2005	6		6
2006	1		1
2007	6	2	8
2008	6	7	13
2009	4	1	5
<b>합 계</b>	40	18	58
<b>백분율</b>	69.0%	31.0%	100.0%

<그림 5> 연대별 노인 음악치료 전공분류 분포



음악치료 전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공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44.7%로 나타났다(신우영, 2005). 이것은 누적 결과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 이후부터는 비율이 비슷해지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음악치료 전공의 연구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본 연구의 노인 대상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노인 대상의 음악치료 연구는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보다 관련 분야에서 아직까지 그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전공분류에 따른 측정도구

전공분류별 측정도구 분석 결과를 보면 <표 12>에서와 같이 음악치료 전공의 경우 심리적 도구의 사용이 51.2%로 가장 많았고, 모든 도구들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관련분야의 경우에는 심리적 도구에만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전공자의 경우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된 도구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악치료 전공의 경우 심리적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표에는 기재되지 않는 질적 도구도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음악적 도구나 생리적 도구의 사용도 많지는 않지만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치료 관련분야의 경우 음악적 도구 사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음악치료 연구에 있어 전공자들의 연구가 좀 더 학문의 본질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2> 전공분류와 측정도구

연도	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 관련분야			합계
	심리	음악	생리	심리	음악	생리	
1998				1			1
1999	3	2					5
2000				1			1
2001	3	1					4
2002	5		1	2			8
2003	3			5			8
2004				5			5
2005	8	1					9
2006		1					1
2007	8	2	1	3			14
2008	8			13		1	22
2009	6			2			8
<b>합 계</b>	44	7	2	32		1	86
<b>백분율</b>	51.2%	8.1%	2.3%	37.2%		1.2%	100%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노인 대상 음악치료 연구에서의 연구유형, 연구대상, 목적영역, 전공분류에 따른 동향을 분석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 되었다. 현재, 논문 내용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논문 내용분석 연구의 사례는 없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가 이제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시도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목적이나 연구방법에는 큰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대상자에 대한 필수 준비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음악치료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다양한 기능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상군과 이상군을 확연하게 나누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발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시력과 청력이 감소되고, 발목반사가 소실되는 등의 정상군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비정상적인 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젊은 대상이나 일반 성인에게 사용하는 도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음악치료에서는 노인 대상자의 기능과 상태에 맞는 측정도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상자의 기능과 상태에 따른 다양한 음악치료적 상황 안에서 가장 적합한 연구 디자인과 측정 도구는 연구의 질과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도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2001년 이후부터 연구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음악치료의 동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부터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2008년에는 현재까지 중 연구 빈도가 최대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실험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형별로 사용된 측정도구의 분석결과 심리적 측정도구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실험연구의 디자인에서 검증된 심리적 측정 도구의 사용은 안정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노인 음악치료 연구 대상 분포에서는 신경질환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 노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질환 노인 대상자 중에서는 치매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졸중 환자가 많았다. 점차 가족이 분리되어 가는 현재 시설거주 노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음악치료 연구대상 분석 결과 중 노인 대상 연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노인 음악치료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신경계 질환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동향이 음악치료 전반적인 동향 및 국외 연구의 동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노인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적 영역을 6가지로 분류 하였을

때 정서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지 영역의 연구가 많았다. 치료 목적 영역별로 사용된 측정도구를 보면 역시 정서와 관련된 도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인지 관련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질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생리적 도구의 사용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 음악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음악치료 전공 연구와 음악치료 관련 분야 연구 빈도는 전공 연구의 비율이 두 배 이상이었으며 측정도구 사용에 있어서도 전공 연구가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관련분야의 경우 거의 심리적 도구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음악적 도구의 사용은 음악치료 전공 연구에서만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음악치료 전공 연구의 전문성을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음악치료가 시작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이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변화된 시점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초창기 음악치료에서의 노인 대상의 연구부터 현재의 연구까지 변화와 발전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에 대비하여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질환을 가진 노인의 비율도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음악치료의 수요도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며 노인 및 보호자의 수준 향상으로 음악치료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상태 및 질환도 그 종류가 점차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대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 접근법과 평가도구가 요구 될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유형별 연구 동향 분석에서 노인 음악치료 연구가 실험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음악치료 전반적으로는 실험연구와 기술연구의 차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대상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기술연구 및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별 연구 동향에서는 신경질환 대상자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신경질환에서도 치매노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치매외의 뇌졸중, 파킨슨 등 다른 신경질환 대상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증상 연구뿐만 아니라 질환 예방과 관련한 연구도 증가되어야 한다.

셋째, 목적영역별 연구 동향에서는 정서 영역에 편중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인지, 행동, 사회, 생리, 운동과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까지의 노인 대상 음악치료는 누적 빈도에서는 전공 분야가 관련 분야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2004년과 2008년에는 관련분야의 연구 빈도가 더 높았다.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공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 심리적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생리적 도구나 음악적 도구의 사용으로 연구 방법의 폭을 넓혀야 한다.

노인 대상 국내 음악치료 동향은 편중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측정 도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홍조, 고경봉, 기선완, 김경희, 김도훈, 김세주, 오병훈 등. (2006).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고경은. (2005). **음악치료의 대상별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범석. (2001).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교류적 음악활동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곽상순. (2007). **노인성치매에 대한 음악치료의 이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은미, 김동민, 김승아, Austin, D., Scheiby, B., Summer, L.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곽현정. (2003). **음악활동이 노인의 시지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구민재 (2008). **그룹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석만. (2008).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영애. (2008).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노인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권환순. (2009).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회상요법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김경혜. (2001). **노인의 음악선호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명애, 김상남, 장희정, 오윤정, 김혜옥, 박은아. (2002). **노인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 분석**. **노인간호학회지**, 4(1), 59-70.

- 김미애. (2003). 노래부르기가 초기 치매환자의 단어 회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미진. (2007). 음악치료가 노인전문병동 환자의 코티졸,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민구. (2005). 한국어판 Modified Mini-Mental State(3MS-K) Examination의 신뢰도와 타당도. *생물치료정신의학회지*, 11(2), 130-131.
- 김부영. (1998). 치매노인의 음악요법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부영. (2001). 치매 간호중재로 실시한 원예, 음악, 미술요법의 효과 비교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0(1), 51-63.
- 김선호, 송미순. (2008). 노인 대상의 고혈압 비약물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논문 분석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10(2), 152-163.
- 김성연. (2008). 회상을 활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세희. (2007). 원예치료 연구 효과의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소희. (2003). 음악치료에 대한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수빈. (2008). 국내 미술치료연구 동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수빈, 홍은주. (2008).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2), 71-86.
- 김수연. (2002). 음악치료가 뇌졸중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수정. (2008). 통합예술치료가 여가 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 (2008).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집단음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석사

- 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김수희. (2002). **음악요법/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영숙. (2003). **시설 노인의 사회적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 김영애. (2002). **중증 치매 노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참여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아. (2003). **치매노인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Rhythm-based music therapy**.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아. (2005). **창의적 동작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이 성인후기 치매환자의 신체표현능력과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주희, 백설향. (2008).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음악중재가 부분마취 환자의 수술 중 불안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14(1), 187-198.
- 김천오. (2008). **통합예술치료가 시설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및 회기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김춘길. (2004). 국내 노인 간호연구 분석. **노인간호학회지**, 6(1), 81-90.
- 김춘길. (2005). 국내 간호학회지의 노인논문 분석. **노인간호학회지**, 7(2), 125-135.
- 김현지. (2004). **음악치료가 노인 우울증 환자의 학습된 무기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김효성. (2002).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관련 음악치료 석사논문의 경향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김희성, 이은희. (2001). 음악적용이 원예치료에 미치는 효과. **식물·인간·환경**, 4(1), 27-33.
- 나미희. (1999). **노인의 우울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해본 치료적 음악**

- 활동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나혜원. (2006).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환자의 음악적 잔존능력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류기광. (2007). **집단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정서, 삶의 질 및 정신행동증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문서란. (2002). **사물놀이의 자진모리장단이 노인의 상지근력 활동도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박선경. (2005). **미술심리치료를 위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박정미. (2007). **치매노인을 위한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과 분석적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비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중희. (2008). **노래 부르기 활동이 치매노인의 기억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진희. (2004). **음악치료가 장기입원 노인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령. (2004). **집단음악프로그램이 시설노인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변미경. (2009). **집단음악치료가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고독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만옥 등. (2007). **신경학.** 서울: 군자출판사.
- 송미순, 하양숙, 유수정, 박연환. (2002). **노인간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정주. (2001). **집단음악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송효숙. (2006). 치매노인을 위한 국악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신우영. (2005). 1982-2004년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심민수. (2001). 음악치료의 임상적 방법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양광희 등. (2001). 노인건강관리의 실제와 전망, 서울: 수문사.
- 엄선화. (2008). 회상을 이용한 음악치료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오대민, 장유진, 소인섭, 이영현, 허무룡, 최영애. (2006). 국내 논문에 있어 원예치료 대상자별 프로그램 분석연구, 원예과학기술지, 24(1), 104-109.
- 오용희. (1999). 음악치료가 노인의 우울증 및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영지. (2008). 악기 연주를 사용한 인지 훈련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윤혜상. (2001). 노인간호학, 서울: 청구문화사.
- 이금선. (2004). 치매 노인 음악치료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 이미경. (2007).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전문병원 주간보호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미옥. (2008). 음악치료가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 이미정. (2008). 회상을 유도한 노래 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선경. (2004). 음악치료의 이론적 접근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이수정. (2005). 리듬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숙영. (2008). 노래 부르기를 통한 경증치매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 (2007). 치매 노인의 단기 기억력 증진을 위한 리듬활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선. (2002).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후기 성인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영화. (2009). Journal of music therapy(1999-2008) 논문의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원유. (2003).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리듬 음악요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인애. (2009). 치매어머니와 함께 음악치료과정에 참여하는 딸의 경험.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용. (2000). 치매 노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일경. (2009). 악기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 노인의 우울과 '행동 및 심리증상(BPSD)'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균, 김용식. (2001). 제4판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이정진. (2007). 노래회상을 통한 치매노인의 인지재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주미. (2003).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주희. (2000). 집단 음악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창정, 이미옥. (2008). 한국의 노인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술치료 연구**, 15(3), 589-608.
- 이형석 등. (2003). 노인삶의질척도의 표준화, **한국임상심리학회**, 22(4), 859-881.
- 임경미. (2001). **음악치료를 통한 노년기 스트레스조절 Program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임영란. (2001). **한국노인의 가창성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임진석. (2006).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의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장은정. (2006).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이상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장지윤. (2005).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상에 대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가은. (2005). **치료적 음악활동이 좌측 편마비 환자의 편측 무시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정광희. (2007). **음악치료가 노인환자의 실망감과 초조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정은숙. (2009). **한국원예학회 발표논문의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한 국내 원예학 연구의 최신동향**.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정은이. (2001). **한국음악치료의 역사-1960년대부터 1996년까지**.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정혜정. (2004). **국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지승은. (2009). **우리나라 원예치료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 최금봉. (2008).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자아통합감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10(2), 109-120.
- 최 선. (2003). 음악치료가 중증치매노인의 증상완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최성주. (2007). 리코더 연주를 통한 뇌졸중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 향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애옥. (2007). 1999년-2006년 국내 미술치료 관련 연구 동향 분석(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옥경. (2002). 치료적 음악활동이 파킨슨 환자의 운동성과 정서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최현주. (2003). 노인 수도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 음악치료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통계청. (2008). 사망원인통계.
- 한정아. (2005). 뇌졸중 노인부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음악치료활동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재연. (2006). 국외 노인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표 및 음악치료활동 형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경령. (2003). 오르프 음악치료가 시설 노인들의 우울 완화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 홍도경. (2005).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변화에 대한 MIT(melodic intonation therapy)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인실. (2008).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증에 미치는 음악치료의 개선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황정이. (2008). 혈관성 치매노인을 위한 다영역적 음악치료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Aigen, K., Bruscia, K. E., Gfeller, K., Hanser, S. B., Maranto, C. D., McGuire, M. G. (2004). Music therapy research. 정현주 외 (역). **음악치료연구**.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5).
- Brotons, M., Koger, S. M., & Pickett-Cooper, P. (1997). Music and dementias: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Music Therapy*, 34(4), 204-245.
- Clair, A. A., & O Konski, M. (2006). The effect of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 on gait characteristics of cadence, velocity, and stride length in persons with late stage dementia. *Journal of Music Therapy*, 43(2), 154-163.
- Jellison, J. A. (1973). The frequency and general mode of inquiry of research in music therapy, 1952-1972. *Counci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1-8

## ABSTRACT

Analysis of the Tendency of Research of  
Korean master's thesis about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1998-2009)

Jeong-in, Kwo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organize the contents of master's thesis about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that were presented in Korea from 1998 through 2009 and thereby examine the tendency of the researches on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in Korea. Hereupon this researcher classified the papers that were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by the year and also by the research type, research subject, research purpose

and majo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master's thesis about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in Korea classified by the year from 1998 through 2009 increased little by little constantly and in the recent 2008 the frequency of research was the highest.

Second, the weight of experiment research was the highest in the research type and qualitative researches were steadily attempted. The increase of researches that performed the two research methods that we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pectively showed the diversity by the specialty of music therapy approach.

Third, among the subjects of researches the ratio of subjects with a nervous disease was the highest and the frequency of researches about the general elderly followed. Especially the ratio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was the highest.

Fourth, in the area of purpose of the research the ratio of researches on the emotional area was the highest among 6 classification items and the next was the researches on the cognitive area. In addition the use of psychological tools that measure emotions as the measuring tools according to the purpose area was the highest.

Fifth, the majors in music therapy showed twice of research achievements than the related fields. About the measuring tools of the majors of music therapy were diverse but in the related fields those were concentrated only on psychological tool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tendency of researches on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in Korea was uniform and disproportionate and this coincides

with the tendency of the general music therapy and of the researches that analyzed the preceding papers of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in foreign countries.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for the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 research purpose and the direction of the use of measuring tools through the results of analysis of Korean master's thesis with the elderly as the subjects like the above researches.

# 부 록

<부 록 1> coding sheet

No.01

저자/연도	김부영 (199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행동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치매노인의 음악요법 효과에 관한 연구				
목적	음악요법 효과를 파악하여 치매노인의 양질의 삶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				
대상	노인복지관 치매 노인 단일군 20명				
방법및설계	1) 대상자가 선호하는 곡으로 구성된 테이프 듣기, 리듬악기 연주, 따라 부르기를 1일 3회, 30분씩, 1개월 실시 2) 음악요법의 실시전, 실시 1주후, 2주후, 3주후, 4주후에 그 효과를 측정하는 단일군 사전 사후설계				
측정도구	1968년 미국 국립정신건강 연구소의 정신과 와이어트(R.J. Wyatt)와 쿠퍼(D.J. Kuper)가 제작한 14 증상별 행동 및 정서측정도구(A Fourteen-Symptom Behavior and Mood Rating Scale)				
결과	1) 실험전과 실험 1주후( $p=.000$ ), 실험전과 실험 4주후( $p=.03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음. 2) 지속적인 음악요법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치매노인의 행동 및 정서에 효과적인 간호 중재임.				

저자/연도	나미희 (1999)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노인의 우울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해 본 치료적 음악활동의 효과				
목적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우울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에 미치는 치료적 음악활동의 효과 측정				
대상	노인복지관의 62세에서 82세의 노인, 13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70분씩 8주 시행 2) 1세션 각 20분 동안 당 3가지 활동으로 구성 3) 사용된 음악활동은 적극적인 음악 만들기, 율동, 악기연주/즉흥연주 4) 음악활동 적용 전과 후에 측정				
측정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연령, 종교, 교육, 건강, 주거, 동거, 용돈 상태 2) 우울척도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Von Otto(1983)의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를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양식에 맞게 수정한 정인파, 광동일, 신동균, 이민수, 이현수, 김진영(1997)의 노인우울척도 3)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SEI)의 Rosenberg Scale(1965)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 5단계 Likert식 5점 척도임.				
결과	1) 음악활동 적용 전과 후의 우울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1$ ) 나타냄. 2)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있어서 비록 평균점수는 향상되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음.				

저자/연도	오용희 (1999)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생리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음악치료가 노인의 우울증 및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에 미치는 영향				
목적	중풍과 치매의 예방차원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대상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노인집단 15명(실험집단) 실시하지 않는 노인집단 15명(통제집단)				
방법및설계	1) 매주 2회씩 70분간, 5주간에 걸친 총 10회기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측정 실험집단 설계에 의거,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후 각각 설문지에 의해 측정된 노인 우울척도 및 채혈에 의해 측정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분석				
측정도구	1) 우울척도: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 2) 콜레스테롤 척도: HDL-콜레스테롤 대비 총콜레스테롤의 비율(TC/HDL) 3) 중성지방 척도: 혈중 1dL당 중성지방 수치(mg) 사용				
결과	1)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한 노인집단의 우울 완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2)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변화에 있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수치상으로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수치가 다소 호전되었음.				

저자/연도	이인용 (2000)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행동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치매 노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 연구				
목적	치매 노인의 음악선택과 선호도 평가				
대상	치매노인 단기보호소 거주 치매 진단 대상자 14명				
방법및설계	1) 주2회 5주, 총 10회, 1회 30분(노래부르기, 악기연주, 동작활동 각 10분)				
측정도구	1) 비디오 분석 활동중 나타난 행동의 횟수와 활동에 참여한 지속시간 측정				
결과	<p>1) 참여 지속시간은 악기연주활동에서 유의함(<math>p=.0001</math>),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서 노래부르기가 가장 높은 발생횟수 나타냄(<math>p&lt;.05</math>)</p> <p>2) 리듬악기가 멜로디악기보다 더 높은 참여시간 나타냄(<math>p=.048</math>),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서 리듬악기 활동이(<math>p&lt;.05</math>), 바람직한 활동에서 멜로디 악기가 더 높게 나타남(<math>p&lt;.001</math>).</p> <p>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생음악 사용 시 참여지속시간 더 높게 나타남. 바람직한 행동은 생음악이(<math>p&lt;.05</math>),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녹음음악 사용 시 더 높은 행동횟수 나타남(<math>p&lt;.05</math>).</p> <p>4)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도구를 사용한 활동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활동보다 더 높은 참여지속시간을 나타냄. 바람직한 행동에서는 도구의 사용 유무가 비슷한 영향을 주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음(<math>p&lt;.05</math>).</p>				

No.05

저자/연도	이주희 (2000)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집단 음악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목적	집단 음악 프로그램 실시 후 시설노인의 우울증상 감소				
대상	요양원 시설적응이 6개월 이상 된 65세 이상의 정상(청각, 인지)의 여자 노인 28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3주, 총 6회 실시 2)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로 처치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처치완료후와 1주후에 추후조사 실시				
측정도구	1) 우울척도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Von Otto(1983)의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를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양식에 맞게 수정한 정인파, 곽동일, 신동균, 이민수, 이현수, 김진영(1997)의 노인우울척도				
결과	1) 음악프로그램 받은 실험군이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감소 2) 사전우울정도가 높았던 집단의 우울정도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 1주후도 지속성 유지 3) 적용한 음악프로그램이 우울의 정서, 행동, 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 이었음				

저자/연도	고범석 (2001)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교류적 음악활동 프로그램 연구				
목적	치매노인과 주부양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적 음악활동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대상	노인전문병원 입원 중인 치매노인의 주부양자 2명(아들 1명, 딸 1명)				
방법및설계	<p>1)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각 커플 별로 6주 동안 주 1회 25분 음악활동 실시</p> <p>2) 음악활동 참여 전, 후의 부양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실시</p>				
측정도구	권중돈(1994)이 개발한 부양부담 사정도구				
결과	두 사례 모두 교류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후에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차원의 부양부담은 감소되었으나 심리적 부담의 경우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No.07

저자/연도	송정주 (2001)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집단음악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목적	집단음악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대상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 27명(실험-12명, 통제-15명)				
방법및설계	1) 주 3회 매회 50분간, 4주 동안 실시 2) 음악치료를 시행하기 전과 후에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				
측정도구	1) 윤진(1982)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2) DLS 고독척도 Schmidt와 Sermat가 1983년에 제작한 Different Loneliness Scale을 박선희(1997)가 논문에 사용한 것을 이용				
결과	1) 집단 음악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하게 나타남( $p=.003$ ). 2) 집단 음악활동이 노인의 고독감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하게 나타남( $p=.000$ ).				

No.08

저자/연도	송효숙 (2001)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행동
전공분류	관련분야				
<b>제목</b>	치매노인을 위한 국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b>목적</b>	음악치료 중에서 우리 정서에 적합한 국악 활동을 시행하고 결과 분석하기				
<b>대상</b>	노인병원 치매환자 8명(여성 4명, 남성 4명)				
<b>방법및설계</b>	1) 국악활동 요소 감상하기, 민요부르기, 소고치기, 동작따라하기 2) 주 1회, 50분, 총 30회기 진행				
<b>측정도구</b>	1) 각 과정별, 단계별로 환자의 반응 및 행동변화 기록 2) 반응 및 행동 측정 기준은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누었음.				
<b>결과</b>	1) 치매노인에 대한 국악치료 활동이 높은 참여도와 인지적, 신체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				

No.09

저자/연도	임경미 (2001)	연구유형	기술연구	목적영역	정서, 행동
전공분류	관련분야				
<b>제목</b>	음악치료를 통한 노년기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b>목적</b>	노년기 스트레스 조절에 음악치료가 미치는 효과와 치료도구로서 이용이 가능한가 알아보고자 한다.				
<b>대상</b>	노인학교 학생 중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0명				
<b>방법및설계</b>	1) 초기면접 실시하여 대상자별 표적행동과 애칭 정하기 2) 주 1회, 30~40분, 총 12회 실시 3) 대상자별 변화목표, 증상, 행동의 변화와 효과를 기록				
<b>측정도구</b>	사회복지사와 치료사가 대상자별 초기면접을 실시하여 표적행동을 정하고 매 회 세션 마다 관찰하고 기록함.				
<b>결과</b>	1) 노인의 경직된 신체를 이완시키고 부정적 심리 상태를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으로 변화 시킴. 2) 그룹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사회관계를 이룸으로써 스트레스 예방 및 조절 3)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통제력 향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강화				

No.10

저자/연도	임영란 (2001)	연구유형	기술연구	목적영역	운동(가창)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한국노인의 가창 성역에 관한 연구				
목적	한국노인들의 평균성역위와 성역폭을 조사하여 노래부르기 활동의 기초 자료 제공				
대상	노인복지관 60~94세의 노인 76명(여자 42명, 남자 34명)				
방법및설계	<p>1) 개인적으로 성역 측정</p> <p>2) E<sub>4</sub> 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개인이 편안하게 노래부를 수 있는 한계음에 이를 때까지 키보드로 연주되는 각 음고를 허밍으로 일치시키도록 지시 되었음.</p>				
측정도구	<p>3) Khun, Wachhaus, Moore, Plantle(1979)의 Vocal Range Check Formm 을 사용</p>				
결과	<p>1) 전체 노인의 가창 성역은 F#3 ~ A#4의 성역위와 평균 17반음의 성역폭을 가짐.</p> <p>2) 약 75%의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래부를 수 있는 기능적인 성역은 G#3 ~ G#4 임.</p> <p>3) 여자는 E3 ~ A4, 남자 G#2 ~ B3 의 평균성역위를, 성역폭은 여자 약 18반음, 남자 15반음 이었음.</p>				

저자/연도	김수연 (2002)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음악치료가 뇌졸중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목적	음악치료를 받기 전과 받기 후를 비교하여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검증한다.				
대상	사회복지관 주간보호 시설의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 환자(60~74세) 9명(남자 8명, 여자 1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70분, 총 10회의 프로그램 진행 2) 척도를 사용하여 음악치료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 평가함.				
측정도구	1) 우울척도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GDS) 사용 2) 자아존중감 측정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을 전병세가 번역한 도구				
결과	음악치료는 뇌졸중으로 인한 우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높혀 뇌졸중 화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준다.				

No.12

저자/연도	김영애 (2002)	연구유형	기술 및 질적 연구	목적영역	인지, 행동
전공분류	음악치료				
<b>제목</b>	중증 치매 노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참여도 연구				
<b>목적</b>	중증 치매환자의 음악활동 참여도 관찰을 통해 얼마만큼의 참여가 가능한지를 비교 분석한다.				
<b>대상</b>	중증 치매환자 3명(66세, 71세, 75세, 모두 여자)				
<b>방법및설계</b>	1) 주 2회, 매회 50분, 10주, 총 20회기 실시 2) 노래부르기, 동작활동, 악기연주를 실시하고 비디오 촬영				
<b>측정도구</b>	1) 참여도 측정 노래부르기, 동작활동, 악기연주, 의사소통, 앉아있기의 다섯가지 행동 유형을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비디오로 질적 분석 2) 측정방법 행동지속측정: 기간 기록법 다섯 가지 행동 유무 반응 기록: 부분 간격 기록법				
<b>결과</b>	음악치료는 인지기능의 손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소외되고 방치되어지는 중증 치매 노인환자들에게 다양한 음악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저자/연도	문서란 (2002)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운동, 생리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사물놀이의 자진모리 장단이 노인의 상지근력 활동도수에 미치는 영향				
목적	리듬청각자극으로서의 사물놀이 자진모리장단이 노인의 즉각적 상지근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상	노인시설 거주 60~89세의 노인 10명(남자 2명, 여자 8명)				
방법및설계	피험자가 북을 치는 동안 1) 외부적인 청각자극 제시가 없을 때 2) 피험자의 내재박과 일치하는 빠르기의 기본 리듬을 청각자극으로 제공할 때 3) 피험자의 내재박과 일치하는 빠르기의 자진모리장단을 청각자극으로 제공할 때 EMG(electromyogram) 측정				
측정도구	1)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육의 활동도를 측정 2) 근전도(EMG)라는 기구가 사용되며 이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탐색하고 증폭하여 기록함.				
결과	노인의 음악선호도와 리듬의 성격 및 리듬적용의 형태가 고려된 사물놀이의 자진모리장단이 리듬청각자극으로 제공되었을 때 노인의 즉각적 상지 근육 활동이 강화되었다.				

저자/연도	이영선 (2002)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후기 성인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적	국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과 개선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노인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후기 성인 47명(남 18명, 여 29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매회 40분, 4주간 실시 2)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사전검사, 실시 후에 사후검사				
측정도구	1)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윤진의 후기 성인 생활만족도 척도 사용 2) 무력감의 측정도구 Miller(1983)의 무력감측정 도구 사용				
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후기성인들의 무력감의 감소와 생활만족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후기성인들이 과거에 즐겨들었던 장르의 음악들이 음악치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연도	최옥경 (2002)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운동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치료적 음악활동이 파킨슨 환자의 운동성과 정서에 미치는 효과				
목적	리드믹 활동에 기초한 치료적 음악활동이 파킨슨환자의 운동성과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병원 외래환자로서 50~70세의 파킨슨 환자 18명(실험군 10명, 통제군 8명)				
방법및설계	1) 실험군 중 8명은 11주 동안 20회, 3명은 8주동안 16회 2) 1주일에 2번, 1시간 30분 동안 오전과 오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3) 실험군과 통제군 모두 사전, 사후 검사 실시				
측정도구	1) UPDRS(일상생활 능력과 운동성 기능) Phan(1987)의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 단일화된 파킨슨병 계측척도) 사용 2) BDI(우울척도) Beck 등(1967)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이영호(1993)가 번역한 것 사용 3) PDQL(삶의 질의 평가) Boer(1996)의 Parkinson's Disease Quality of Life(PDQL)을 사용				
결과	1) UPDRS의 일상생활능력과 운동성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로 향상을 나타냄 2) BDI 우울점수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로 우울 감소 3) PDQL의 삶의 질에 있어서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향상을 보임.				

저자/연도	곽현정 (2003)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음악활동이 노인의 시지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				
목적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음악 활동이 노인의 시지각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시설에 거주하며 시각적 병변이 없는 75~90세의 여성노인 20명 (실험군 10명, 통제군 10명)				
방법및설계	1) 주 3회, 매회 60분씩, 6주간, 총 15회 실시 2) 음악치료 시행 전에 사전검사, 종료 후 사후 검사를 두 집단 모두에게 실시				
측정도구	1) MVPT-V Bouska와 Kwatny(1983)이 개정한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Vertical Format 사용				
결과	1) 실험군은 통제군에 비해 MVPT-V 총점에서 유의한 향상 나타냄 2) 시각기억력, 시각적변별력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 나타남 3) 전경배경과 공간관계, 시각적완성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전·사후의 평균 점수에서 통제군은 평균값이 더 낮아졌고, 실험군은 더 향상 되었음.				

저자/연도	김미애 (2003)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노래부르기가 초기 치매환자의 단어 회상에 미치는 효과				
목적	노래부르기를 통한 기억방법이 초기 치매 환자의 단어 회상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대상	치매로 진단받은 자 중 MMSE-K 점수가 15~24점이며 기억등록과 언어, 인지에 문제가 없고 기억회상은 0점을 받은 35명(남자 12명, 여자 23명)중 통제군 14명, 실험군 21명				
방법및설계	<p>1) 2~3명 정도의 그룹으로 1회 시행</p> <p>2) 통제군: 7개의 단어 전체 2회 읽기, 한 단어씩 카드 제거하며 1회씩 읽기를 총 7회, 전체카드 보여주고 다시 2회 읽기, 1회의 즉시회상, 5분동안 간섭과제, 1회의 지연회상</p> <p>3) 실험군: '아리랑' 부르고 후반부 가사를 7개의 단어로 대치한 후 통제 그룹의 방법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 단어 회상시 멜로디 단서 주지 않는 그룹 10명, 허밍으로 멜로디 단서주는 그룹 11명으로 진행.</p>				
측정도구	<p>1)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7개 범주(동물, 채소, 과일, 세면도구, 그릇, 생선, 타는 것)에 속하는 단어 중 어휘사용 빈도 비슷한 단어를 문자카드로 만들어 사용</p> <p>2) 노래부르기 활동과 대화 활동을 진행한 후 직후에 기억한 단어 개수와 5분 후에 기억한 단어 개수를 기록</p>				
결과	<p>1) 노래부르기 집단과 읽기 집단 간에 즉각적으로 회상한 단어의 개수와 5분 지연 후 회상한 단어 개수, 시간경과에 따라 회상한 단어의 개수에서 유의미한 차이 나타냄.</p> <p>2) 노래부르기 집단 내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p>				

저자/연도	김영숙 (2003)	연구유형	질적연구	목적영역	사회성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시설노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사례 연구 -회상을 위주로 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적	회상을 이용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사회성 향상 및 대인관계 증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가를 밝히고 치료도구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대상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74~83세의 여성 7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40분간 14회기 진행 2) 총 14회기 중 1~4회기 시작단계, 5~12회기 진행단계, 13~14회기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3) 회상을 이용한 치료적 접근을 실시함.				
측정도구	매 회기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와 보조 치료사,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치료사에 의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기술되어진 관찰 일지를 통해 질적 분석 실시				
결과	회상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시설 노인들이 노년기 장애와 시설거주라는 환경의 변화, 가족과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치료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저자/연도	김정아 (2003)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행동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치매노인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Rhythm-based music therapy				
목적	리듬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집중력에 미치는 반응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목표달성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노인복지관 주간 보호시설의 치매 진단을 받은 65~90세 대상자 10명(남자 3명, 여자 7명)				
방법및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료사와 관찰자 2명, 복지사 3명이 함께 참여</li> <li>2) 7주 동안 10회의 세션 실시</li> <li>3) 비디오로 녹화하여 비교, 분석</li> <li>4) MMSE-K의 점수에 의해 2그룹으로 구분함</li> </ol>				
측정도구	각 대상마다 매 회기의 활동에 따른 집중행동의 유무와 집중 지속시간을 Time Sampling과 Duration Recording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				
결과	리듬활동을 중심으로 한 구조화된 음악적 자극이 치매노인의 치료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자/연도	이주미 (2003)	연구유형	기술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비교연구				
목적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이 음악에 대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시설노인 100명(남 20명, 여 80명), 재가노인 99명(남 29명, 여 70명), 총 199명				
방법및설계	1) 시설노인 100명 중 50명은 노래감상, 50명은 노래부르기 시행 2) 재가노인 49명은 노래감상, 50명은 노래부르기 시행				
측정도구	노래감상과 노래부르기에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3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정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얼굴 그림을 이용함.				
결과	1) 시설노인 및 재가노인 집단 모두 노래부르기가 노래감상에 비해 정서적 반응이 더 높음. 2) 노래감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노래부르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시설노인이 더 높은 긍정적 반응 보임 3) 거주기간이 2년이하, 2~4년된 대상자가 평균 4년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 비해 긍정적 반응 보임. 4) 장·단조 및 시대별 구분에 따른 시설노인 집단의 정서적 반응을 보면 1950년대 이전부터 1970~80년대 노래까지는 ‘긍정적’, ‘부정적’ 반응 비율이 장·단조 따라 심하게 교차하였으나 비교적 최근 노래(1890~90년대)에 대해서는 별느낌이 없다는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저자/연도	최 선 (2003)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관련분야				
<b>제목</b>	음악치료가 중증치매노인의 증상완화에 미치는 효과				
<b>목적</b>	노랫말과 리듬의 기억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중증 치매노인의 증상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b>대상</b>	병원 입원중인 중증 치매노인 41명 중 20명의 실험군, 21명의 대조군				
<b>방법및설계</b>	1) 주 1회, 매회 1시간,				
<b>측정도구</b>	1) K-MMSE(Korea-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2)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등급검사 3) Hachinski Scale(헤이친스키 허혈 점수표) 4)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황폐 척도 5) ADL(Activity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척도				
<b>결과</b>	1) K-MMSE 측정 결과 음악치료가 중증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2) CDR 측정결과 음악치료가 중증치매노인의 임상적 치매 등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3) GDS 측정결과 전반적 황폐수준의 변화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4) ADL 측정 결과 음악치료가 중증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				

저자/연도	최현주 (2003)	연구유형	기술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사회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노인 수도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 음악치료적 접근				
목적	노인의 사회성에 미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노인 수도자 3명에게 그룹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한다.				
대상	은퇴 수도자 3명(93세, 76세, 86세, 모두 여성) 의사소통 가능, 신체적 장애 없음				
방법및설계	1) 매주 1회, 50분간, 총 12회 시행 2) 12회기를 3단계로 나누어 진행 3) 하위영역으로 목소리 크기, 노래부르기, 언어지시 수행도, 대화 참여도, 연주태도의 5가지로 구분				
측정도구	1) 매회기 비디오록 녹화한 것을 보고 측정 2) 그룹 음악치료 평가 기준표에 의거 Likert 5점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조작적 평가기준은 다음의 5가지이다. 목소리 크기(dB), 노래부르기, 언어지시 수행도, 대화참여도, 연주태도				
결과	내담자들 간의 반응교류 분석과 Likert 5점 방식 평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내담자들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상호간의 친밀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				

저자/연도	홍경령 (2003)	연구유형	질적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사회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오르프 음악치료가 시설 노인들의 우울 완화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목적	오르프 음악치료 활동이 시설 노인들의 우울정도와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	시설 입원 노인 6명(69~86세, 모두 여자)				
방법및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1회 40분씩, 3개월, 총 12주 진행</li> <li>2) 음악치료 사전-사후 평가 도구로 측정</li> <li>3) 검사결과를 기초로 대상자별 개별 사례 분석</li> </ol>				
측정도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울척도 한국형노인우울척도(KGDS) 사용</li> <li>2) 대인관계변화척도 Schlein과 Guern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가 번안, 전석균(1995)이 신뢰도 검증한 것을 사용</li> </ol>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르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는 노인 집단의 우울정도 완화에 효과가 있다.</li> <li>2) 오르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는 노인 집단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li> </ol>				

저자/연도	박혜령 (2004)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집단음악프로그램이 시설노인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적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증가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집단음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조사한다.				
대상	양로시설 노인 12명(남 7명, 여 5명)의 실험군, 12명의 통제군(남 6명, 여 6명)				
방법및설계	1) 실험군을 대상으로 6주간 12회 진행				
측정도구	1) 윤 진의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2)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3) Yesavage 등이 개발한 우울감척도를 정인과 등 (1971)이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한국형 노인 우울 측정지 사용				
결과	1) 생활만족도가 향상됨 2) 자아존중감 정도가 향상됨 3) 우울감이 감소함.				

저자/연도	정혜정 (2004)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연구				
제목	국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목적	국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단계에 맞춰서 실시하여 우울수준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대상	병원에 입원한 60~90세 총 18명 실험군 9명(남 3명, 여 6명), 통제군(남 2명, 여 7명) 청각장애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함 KGDS 점수가 14점 이상				
방법및설계	1) 매주 1회 45분간 총 12회 진행 2) 국악치료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측정도구	1) 일상활동평가(Seoul-Activities of Daily Living, S-ADL) 2)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				
결과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수준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국악치료 프로그램이 우울 증상 완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저자/연도	김정아 (2005)	연구유형	기술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창의적 동작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이 성인 후기 치매환자의 신체표현능력과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목적	창의적 동작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이 성인 후기 치매환자의 신체표현능력과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대상	1) 복지관 주간보호의 69~77세의 성인후기 치매환자 5명(남 1명, 여 4명) 2) 치매 경증, 중등도인 자 3) 보행이 가능하고 신체 움직임에 이상이 없는 자				
방법및설계	1) 주 1회 30분씩, 총 10회의 세션 실시				
측정도구	1) 신체표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Laban(1975)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배현숙(1990)이 작성한 신체표현능력 검사 도구를 작성하여 매 세션 비디오 분석 2) 감정상태의 변화 측정에 사용한 도구는 Dooley(2002)의 성인후기 치매환자의 활동과 감정 변화 도구로 매 세션 전·후로 비디오 관찰을 통해 측정				
결과	1) 창의적 동작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은 성인후기 치매환자의 신체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창의적 동작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은 성인후기 치매환자의 긍정적 감정 상태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저자/연도	이수정 (2005)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리듬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목적	리듬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치매노인 중재를 위한 효과적인 음악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의 6명의 치매노인(남 4명, 여 2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40분씩, 14주동안 총 12회기 시행 2) 활동 내용은 리듬의 치료적 요소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언어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 3) 음악치료 사전-사후 평가도구로 측정				
측정도구	박종한과 권용철(1989)이 개발한 노인용 한국판 정신 간이 검사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사용				
결과	리듬중심의 음악치료를 통한 인지기능향상에 대한 결과는 사전-사후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저자/연도	장지윤 (2005)	연구유형	질적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상에 대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				
목적	노인 뇌졸중 환자들의 우울증상 감소에 노래심리치료가 효과적인 기법인가를 대조군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대상	1)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우울증상을 지닌 65세 이상의 대상자 2) 실험군 10명(남 5명, 여 5명), 통제군(남 5명, 여 5명)모집				
방법및설계	1) 실험군: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주 1회, 50분씩 총 16회 2) 대조군: 음악치료 시행하지 않음 3) 두 집단 모두 사전-사후 검사 실시				
측정도구	1) 한국형노인우울척도(KGDS) 사용 2) 노래심리치료에 대한 사례별 분석				
결과	1) 노래심리치료 집단에서는 치료 후에 노인우울척도 점수가 의미있게 개선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우울점수가 오히려 의미있게 상승하였음 2) 치료 전과 후의 우울점수 변화를 두 집단간에 직접 비교 검정한 결과 노래심리치료 집단이 뚜렷이 나은 치료효과를 나타냄.				

저자/연도	정가은 (2005)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치료적 음악활동이 좌측 편마비 환자의 편측 무시 감소에 미치는 영향				
목적	편측 무시 환자들에게 치료적 음악활동을 실시하여 각각의 음악활동이 편측 무시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본다.				
대상	1) 노인전문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고 장기입원 중인 2명의 환자(남녀 각 1명) 2) 인지와 시력에 이상이 없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자				
방법및설계	1) 단일대상연구방법 중 중다중재설계 방법 사용 2) 전·후 평가를 포함하여 총 30회(주 3~4회, 1회 40분) 3) 1:1 개별 치료 4) 대상자1: A1-B-A2-C-A3-D, 대상자2: A1-C-A2-D-A3-B A: 기초선기간, B: 리듬악기연주, C: 키보드연주, D: 가사보고 노래부르기				
측정도구	1) 시지각 검사(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 2)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K) 3) Albert(1973)의 Albert Test 4) Schenkenberg 등(1980)의 선나누기 검사				
결과	1) 치료적 음악활동은 대상자들의 편측 무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각 음악활동은 기초선 기간에 비해 편측 무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저자/연도	한정아 (2005)	연구유형	질적연구	목적영역	정서, 사회성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뇌졸중 노인부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음악치료활동 사례연구				
목적	뇌졸중 노인부부에게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을 제공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대상	뇌졸중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출석중인 65세의 남편과 61세의 부인				
방법및설계	1) 주 1회 50분, 6개월 동안 17회기 진행 2)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 선택				
측정도구	비디오 녹화자료를 중심으로 관찰 분석(지도교수와 음악치료 전공생 1인이 참여)				
결과	음악치료는 뇌졸중 노인과 부양자인 배우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연도	홍도경 (2005)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변화에 대한 MIT에 관한 사례연구				
목적	환자의 구어적인 언어에서의 단어말하기의 음절 수의 변화를 보고자 함이다.				
대상	1) 브로카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 2명(모두 남자)				
방법및설계	1) 주 2회, 40분씩 5주 동안 총 10회의 세션 2) 1:1 개인별 세션 실시				
측정도구	MIT 매뉴얼에 따라 점수를 기록하고 음절에 따라서 획득되는 점수를 측정하고 각각의 Level의 평균(%)에 따라서 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냄.				
결과	뇌졸중 환자의 언어재활 치료에 있어서의 멜로디 억양치료기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브로카 실어증을 가진 환자 2명의 음절수의 발화 성공률의 증가나 과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성공률은 향상되었다.				

저자/연도	나혜원 (2006)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환자의 음악적 잔존능력 비교 연구				
목적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환자의 음악적 잔존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대상	1)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중 AD와 VD에 해당하는 환자 95명 2) MMSE-K에서 24점 이하인 환자 3) 남성 30명, 여성 65명, AD 55명, VD 40명				
방법및설계	1)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 도구의 적절성 검증 후 본조사 실시 2)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의 관찰자가 검사에 참여				
측정도구	York(1994)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RMST를 이은재(2000)가 번안 및 변형한 RMST-K 를 사용				
결과	VD 집단은 음악적 기억, 음 기억/음정구별, 단기기억, 음악적 언어 영역에서 AD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AD 집단은 악기구별항목에서 VD 집단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저자/연도	곽상순 (2007)	연구유형	질적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노인성치매에 대한 음악치료의 이론적 접근				
목적	노인치매에 대한 음악치료의 이론적 접근과 이것을 임상적으로 적용한 효과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대상	치매노인센터 이용 치매 진단 대상자 6명(남 1명, 여 5명)				
방법및설계	1) 이론적 접근을 위한 문헌 조사 연구 2)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그룹 또는 개별 활동으로 모두 4회기 3) 음악감상, 긴장이완, 가사토의 실시 4) 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별 관찰 기록				
측정도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개인별로 치료사가 사례를 기록함.				
결과	치매노인들을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 음악치료와 같은 보완적인 방법이 효과적이었으며 그들의 가족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자/연도	김미진 (2007)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생리, 정서,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음악치료가 노인전문병동 환자의 코티졸,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목적	의료현장에서 치료사와 의료진과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노인환자의 포괄적 평가에 입각해 평가 항목 중 정신건강의 부분을 코티졸과 우울, 인지기능의 평가를 통해 음악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병원에 입원 중인 65~89세 8명의 노인 환자(남 4명, 여 4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40분씩 총 16회기 진행 2) 음악치료 시작 전후간의 1주의 검사지 측정기간이 있었으며 측정은 연구자와 보조치료사 1인의 도움으로 진행				
측정도구	1) 코티졸 측정 간호사의 도움으로 당일 아침 공복 상태인 8시에 사전·사후로 채혈하여 분석 의뢰 2)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GDS) 3) MMSE-K				
결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는 코티졸의 감소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우울과 인지기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다.				

저자/연도	류기광 (2007)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집단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정서, 삶의 질 및 정신행동증상에 미치는 효과				
목적	집단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정서, 삶의 질 및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상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치매환자 20명(실험군, 대조군 각 10명이며 두 집단 모두 남 2명, 여 8명)				
방법및설계	<p>1) 실험군: 5주 동안 주 3회, 매회 50분씩, 15회 진행 대조군: 자유로운 휴식 시간</p> <p>2) 처치 전과 후,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실시</p>				
측정도구	<p>1) MMSE-K</p> <p>2) GDS-K</p> <p>3) 치매노인 삶의 질 척도(GQOL-D)</p> <p>4)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NPI-Q)</p>				
결과	<p>1) 음악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지기능의 호전은 입증되지 않음.</p> <p>2)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미한 우울정서, 삶의 질 영역에서의 호전을 보임.</p> <p>3)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신행동증상 심각도 및 보호자의 주관적 고통 정도의 호전을 보임.</p>				

저자/연도	박정미 (2007)	연구유형	기술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정서, 생리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치매노인을 위한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과 분석적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비교				
목적	기관에 입원해 있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창조적 음악치료와 분석적 음악치료로 예비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치매행동 및 정서특성 효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대상	1) 창조적 음악치료 집단 10명(모두 여자) 2) 분석적 음악치료 집단 10명(남 3명, 여 7명) 3) 통제집단 10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40분씩 총 12회기 실시 2) 사례연구를 포함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지연 설계모형				
측정도구	1) MMSE-K 2) GQOL-D 3) GDS-K 4) 뇌파측정기(EEG) 5) Bruscia(1987)의 즉흥연주 사정분석표				
결과	1)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과 분석적 음악치료프로그램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과 유의미한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2)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뇌파의 긍정적인 파형을 만들 수 있다.				

저자/연도	이미경 (2007)	연구유형	질적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여부	음악치료				
제목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노인전문병원 주간보호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목적	음악치료에 예술치료의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 시행이 주간보호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노인전문병원의 주간보호를 받는 대상자 10명(남 1명, 여 9명)				
방법및설계	1) 주1회 50분씩 15회기 실시 2) 현상학적 연구 방법				
측정도구	1)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KGDS) 2) 적용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측정은 매 회기가 끝난 후, 녹화된 비디오 테잎과 보조치료사와 사회복지사의 관찰일지를 통해 질적 분석 실시				
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노인전문병원의 주간보호 환자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저자/연도	이 영 (2007)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치매노인의 단기 기억력 증진을 위한 리듬활동 연구				
목적	리듬 활동이 치매 노인의 단기 기억력을 증진시키는지를 알아본다.				
대상	단기보호센터 입소 중인 치매노인 7명(모두 여자)				
방법및설계	1) 단일대상, 반복 측정 설계로 사전-사후 검사 2) 주 3회 매회 40분씩 총 18회				
측정도구	1) 리듬기억과제(김장희(2004)의 연구에서 리듬활동 발체 및 보완) 2) 김홍근(1999)의 Rey-Kim 기억 검사 중 언어 기억 검사 3) 매회 녹화된 비디오를 질적으로 분석				
결과	구조화된 리듬 활동이 치매 노인의 단기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저자/연도	이정진 (2007)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노래회상을 통한 치매노인의 인지재활				
목적	노래회상을 통한 음악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재활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대상	치매주간보호소의 65~94세 노인 32명(남 7명, 여 25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40~50분, 총 12회기 진행 2)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측정도구	MMSE-K 사용				
결과	노래회상이 치매노인의 인지재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No.40

저자/연도	정광희 (2007)	연구유형	질적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음악치료가 노인환자의 실망감과 초조감에 미치는 영향				
목적	음악치료가 노인환자들의 정서를 개선하여 주는지 알아본다.				
대상	노인병원 입원 환자 3명(남 1명, 여 2명)				
방법및설계	1) 주 1회 매회 40분씩, 12회 실시				
측정도구	Gotlib, Meyer과 Greenberg 및 Alloy(1989) 등이 사용한 정서평가문항(MAACL)				
결과	실망감의 부정적 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긍정적 정서는 평균은 증대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No.41

저자/연도	구민재 (2008)	연구유형	질적 및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그룹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목적	음악치료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지 알아본다.				
대상	시설노인 5명(남 2명, 여 3명)				
방법및설계	1)주 2회 45분씩, 12회 실시				
측정도구	1)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양적연구 2) 매회기 녹화자료 분석하여 활동참여정도 변화 관찰: 질적연구				
결과	대상자 5인 중 4인의 생활만족도 점수가 증가하였다.				

No.42

저자/연도	김정연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회상을 활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목적	회상을 활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대상	노인복지관의 치매노인 환자 30명(실험군 15명, 통제군 15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매회 50분씩, 12회기 진행				
측정도구	1) MMSE-KC 2) 한국판노인우울척도(GDS-K)				
결과	회상을 활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No.43

저자/연도	김수정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통합예술치료가 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목적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대상	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 26명(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3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매회기 50분씩, 총 20회 실시 2) 사전검사- 10회기 종결 후 중간 검사 - 20회기 종결 후 사후 검사				
측정도구	1)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2) 자아통합감 척도				
결과	음악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44

저자/연도	김수진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집단음악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목적	독거여성노인의 우울감감소 및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증가를 위한 집단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사회복지관 독거 여성노인 10명(실험군), 통제군 10명				
방법및설계	1) 사전-사후 측정 실험집단 설계 2) 주 2회 60분씩, 8주 동안 16회기 진행				
측정도구	1) 노인우울척도 2) 자아존중감척도 3) 생활만족도척도				
결과	독거여성노인의 우울감감소 및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증가를 위한 집단 음악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연도	김천오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통합예술치료가 시설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및 회기과정 분석				
목적	통합예술치료가 시설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노인전문요양원의 치매환자 20명(실험 및 대조군 각 10명)				
방법및설계	1) 처치전과 처치후 두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실시 2) 주 2회 60분씩 총 21회 시행				
측정도구	1) MMSE-K 2) GDS-K				
결과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치매노인의 경우 통합예술치료가 인지결함과 우울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설치매노인의 내적갈등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저자/연도	박종희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사회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노래부르기 활동이 치매노인의 기억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목적	노래부르기 활동이 치매노인의 기억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대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세 이상의 알츠하이머별 치매노인 3명(모두 여성)				
방법및설계	1) AB설계 사용하여 각 회기 마다 1시간씩, 일주일에 6번, 총 32회 실시 2) 실험절차는 사전-치료-사후의 3단계로 구성				
측정도구	1) MMSE-K 2) 사회적 행동능력 척도				
결과	기억력과 의사소통능력 검사, 사회적 행동능력 척도에서 대상자 모두 향상되었으며 유지평가에서도 향상된 상태로 기억력을 유지하였다.				

No.47

저자/연도	엄전화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회상을 이용한 음악치료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목적	회상을 이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치매노인 28명(실험군 및 대조군 각 14명)				
방법및설계	1) 6주간 주 2회, 매회 45분씩 총 12회기 시행				
측정도구	1)MMSE-K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실험집단은 인지 기능의 하위영역 중 지남력과 기억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저자/연도	윤영지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악기연주를 사용한 인지 훈련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목적	악기연주를 사용한 인지 훈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본다.				
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채용 중인 치매노인환자 20명(실험 및 대조군 각 10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매회 50분씩, 총 12회 시행				
측정도구	1)MMSE-K				
결과	악기 연주를 사용한 인지 훈련은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저자/연도	이미옥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음악치료가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과 사회적회피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목적	음악치료가 노인 뇌졸중환자의 우울증과 사회적회피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대상	재활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뇌졸중 치료 받는 노인 5명(남 1명, 여 4명)				
방법및설계	주 1회 매회 60분씩, 12주 시행				
측정도구	1) Beck의 우울척도(BDI) 2)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K-SAD)				
결과	음악치료가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회피 및 불안감도 낮아졌다.				

저자/연도	이미정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인지,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회상을 유도한 노래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목적	회상을 유도한 노래 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대상	실버케어에 입원한 치매노인 26명(실험 및 통제군 각 13명)				
방법및설계	1) 6주 동안 주 2회 35분씩 총 12회기 시행				
측정도구	1) K-MMSE 2)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DSSF-K)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인지점수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우울 점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No.51

저자/연도	이숙영 (2008)	연구유형	질적 및 기술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노래부르기를 통한 경증치매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 연구				
목적	노래부르기 활동을 통해 경증치매노인의 자기 표현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본다.				
대상	노인전문병원 경증치매노인 3명(남 2명, 여 1명)				
방법및설계	주 2회, 매회 40분, 총 12회 시행				
측정도구	1) 자기표현평정척도 2) 사례분석				
결과	양적 결과에서 자기표현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으며, 질적 분석 결과 초기 세션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자/연도	홍인실 (2008)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인지, 생리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증에 미치는 음악치료의 개선 효과				
목적	노인을 대상으로 노래만들기 및 연주회 중심의 음악치료 기법이 우울증과 인지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대상	1)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 30명(실험 및 통제군 각 15명) 2)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67명(실험군 32명, 통제군 35명) 3)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된 노인 16명, 재가 노인 12명				
방법및설계	1) 주1회 매회 60분씩 16주 실시 2) 주1회 매회 60분씩 32주 실시				
측정도구	1) MMSE-K 2) GDS-K 3) EEG				
결과	노래 만들기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점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며, 우울척도도 유의하게 개선하였다.				

No.53

저자/연도	황정이 (2008)	연구유형	기술연구	목적영역	인지, 사회· 정서, 운동
전공분류	관련분야				
<b>제목</b>	혈관성 치매노인을 위한 다영역적 음악치료 연구				
<b>목적</b>	혈관성 치매노인을 위한 다영역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지적 능력과 사회·정서 능력, 운동범위확장과 같은 전반적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b>대상</b>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혈관성 치매환자 1명				
<b>방법및설계</b>	주 2회 총 43회				
<b>측정도구</b>	보조치료사 1명이 관찰기록을 하였고 비디오 및 사진촬영 회기별 사례분석				
<b>결과</b>	혈관성 치매노인을 위한 다영역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지적 능력과 사회·정서 능력, 운동범위확장과 같은 전반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연도	권환순 (2009)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관련분야				
제목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회상요법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목적	주간보호시설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이용한 회상요법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기분상태 향상에 주는 효과를 알아본다.				
대상	주간보호시설 67~90세까지의 경도치매 및 심신기능장애 노인 13명(남 2명, 여 11명)				
방법및설계	1) 주 2회 50분씩, 총 12회기 진행 2)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 2) 기분상태검사(POMS)				
결과	노인들의 과거에 즐겨 부르거나 친근하나 노래들 중에서 긍정적인 가사와 밝은 조성의 노래와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한 회상 요법이 노인들의 기분상태(불안이나 우울, 분노, 활력)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No.55

저자/연도	변미경 (2009)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사회
전공분류	음악치료				
<b>제목</b>	집단음악치료가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고독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b>목적</b>	집단음악치료가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고독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b>대상</b>	노인보건센터 단기보호서비스 받는 20명의 뇌졸중 노인(실험군과 통제군 각 10명)				
<b>방법및설계</b>	8주간 주2회 50분씩 총 16회기				
<b>측정도구</b>	1) 개정판 UCLA 고독척도 2) 대인관계변화척도				
<b>결과</b>	집단음악치료가 시설에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로 작용하였다.				

저자/연도	유미나 (2009)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시설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타악기연주 효과성 연구				
목적	우울과 낮은 생활만족도를 가진 시설노인들에게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대상	1) 요양병원에 입소한 시설노인 4인 2) 정신적 질환이 없고 현실인식이 명확함 3) 시설 입소기간이 평균 1년 이상 4) 노인우울척도 23점 이상, 생활만족척도 11점 이하				
방법및설계	1회 60분씩, 총 12회기 시행				
측정도구	1) KGDS 2) 생활만족도척도				
결과	타악기연주 프로그램이 우울과 낮은 생활만족도를 가진 시설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한 방법이 될 수 있다.				

No.57

저자/연도	이인애 (2009)	연구유형	질적연구	목적영역	정서, 사회
전공분류	음악치료				
<b>제목</b>	치매어머니와 함께 음악치료과정에 참여하는 딸의 경험				
<b>목적</b>	치매어머니와 함께 음악치료과정에 참여하는 딸의 경험을 현상학적 절차로 연구한다.				
<b>대상</b>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어머니와 딸				
<b>방법및설계</b>	주 2회 세션과 면담 각 40분씩 총 8회 실시				
<b>측정도구</b>	1) 삼각측량 2) 세션 및 심층면담 녹음 후 사례분석				
<b>결과</b>	치매어머니를 회피하던 딸에게 직면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소통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감을 느끼며, 치매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복인 자신을 확인하는 진술이 음악치료경험의 의미로 도출되었다.				

저자/연도	이일경 (2009)	연구유형	실험연구	목적영역	정서, 행동
전공분류	음악치료				
제목	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 노인의 우울과 행동 및 심리증상(BPSD)에 미치는 영향				
목적	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 노인의 우울과 행동 및 심리증상(BPSD)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대상	노인보건센터 단기 입소 치매노인 20명(실험 및 통제군 각 10명)				
방법및설계	1) 사전-사후 측정 실험집단 설계 2) 주 2회 50분씩 9주 동안 총 18회 실시				
측정도구	1) KGDS 2) NPI-Q				
결과	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 노인의 우울 및 정동/무감동 증후군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며, 보호자의 고통 정도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